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지대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경의 명과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에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이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명동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남보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b>가</b>	<b>다</b>	서울 02,3705,6000	울산 052,247,3520	천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외경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통해 033,531,3007	세종 044,865,243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b>마</b>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b>타</b>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b>자</b>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b>파</b>
광주 062,609,1300	<b>바</b>	<b>아</b>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6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2	제천 043,645,2580	평택 031,651,7701
<b>나</b>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b>사</b>	안양 031,455,2700	진해 055,542,0020	<b>하</b>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양산 055,367,1144	<b>차</b>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 한국 YWCA

2016년 5월호  
 May  
 Vol.530

**이달의 생각**

돌봄노동의 사회화

**기획**

돌봄과 가사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성평등**

20대 총선 '성평등' 국회 희망을 엿다

**이달의 현장①**

제20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



# 풍요한 삶, 박에스더 (1902~2001)



1969년 1월 11일 YWCA연합회에서는 박에스더 선생의 은퇴식과 함께 '박에스더 기념관 명명식'이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박 선생은 지난 40년간의 YWCA 활동과 21년에 걸친 고국에서의 봉사를 회고하고 앞일을 당부하는 뜻깊은 답사를 하였다.

“저는 40년간 YWCA에서 일을 했고, 그중 21년은 내가 태어난 땅, 이 아름다운 강산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보냈습니다. 영국 시인 테니슨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만난 모든 사람은 영원히 저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중략)

요즈음 여러 사회단체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누구나 이와 같은 단체에 가입해서 소속감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단체들이 다 운동체는 아닙니다. 운동체는 무엇인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YWCA는 기본적으로 변함없는 기독교 진리 위에 서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 지도자들이 계속 노력을 할 때 이 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은 운동이 목적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풍요한 삶』에서(1979년 11월 17일 발행, 김현자 저)

## 2016. 5 한국YWCA



### 표지이야기

서울YWCA는 5월 12일(목) 서울 명동에서 가사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 2016년 5~6월 한국YWCA 주요일정

- 5월 23일**  
동일임금의 날 정책 토론회와 거리 캠페인
- 5월 24일**  
여성평화 심포지엄
- 5월 28일**  
2016 여성평화걷기
- 5월 30일~6월 1일**  
제66차 유엔 NGO 컨퍼런스
- 6월 15일~17일**  
2단계 실무자 교육  
직업훈련 실무자 워크숍

### 제52권 제4호 통권 530호

2016년 5월 19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이명혜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백수경 · 백혜진 · 신선 · 정린 · 정선경

조한나 · 이경순 · 최수경 · 황혜숙

편집 박은실 · 신미희 · 전하예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돌봄노동의 사회화 | 이은영
- 05 **가족과 회원의 달 공동체 예배**  
“**돌봄과 가사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 06 **기획①** 가사노동 보호입법 추진현황과 과제 | 표대중
- 08 **기획②** 생명꿈나무돌봄센터 현장을 가다 | 편집실
- 10 **기획③** YWCA 돌봄노동 50주년 간담회 | 편집실
- 13 **성 평등** 20대 총선 ‘성평등 국회’ 희망을 열다 | 장윤선
- 16 **청년** ‘청년정책’, 소통과 공감에서 출발 | 문윤희
- 18 **이달의 현장①** 제20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 | 편집실
- 22 **이달의 현장②** YWCA 전국회장단 연수 | 김수연
- 24 **이달의 현장③** 춘천YWCA 창립 50주년 기념식 | 이연옥
- 26 **원로에게 듣는다** 김신옥 대전YWCA 증경회장을 만나다 | 편집실
- 28 **회원YWCA 활동현장을 찾아서** 결혼 이주여성들의 봄나들이 | 고명정
- 30 **세계YWCA** YWCA와 YMCA가 한 가족으로 활동하는 나라들 | 이지애
- 32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그분이 나를 ‘안다’ | 최은
- 34 **이달의 이슈**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재생에너지 확대 | 이상훈
- 37 **연합회 소식**
- 40 **회원YWCA 소식**
- 48 **5월의 한국YWCA**

# 돌봄노동의 사회화



이은영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YWCA는 오랫동안 여성 노동자의 인권과 여성들의 복지향상에 관심을 가져왔다. 가사 돌봄서비스 분야는 1966년 11월 서울YWCA에서 직종을 개발하고 교육생 훈련을 시작한 뒤 50여 년동안 급속도로 성장하여 현재 전국에 약 12만 명의 가사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저출산·고령사회로 접어들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갈수록 확대되는 오늘날에는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노동자가 노동자로서 권리와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YWCA는 지난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돌봄노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연합회는 부천YWCA와 성남YWCA에서 돌보미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돌봄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해왔다. 그 성과로 지난해 6월 부천YWCA에서 전국 최초로 돌봄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올해 5월 19일 성남YWCA 돌봄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열린다.

스스로 돌봄노동자로서 인식을 가지고 주인이 되어 모든 운영과 의사결정을 하는 돌봄협동조합의 설립은 50여 년에 이르는 YWCA 직업훈련과 여성노동권 제고의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대기업에서 돌봄시장의 성장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롭게 서비스업체로 뛰어 들 것으로 예상되어 돌봄노동

시장은 산업화와 사회화라는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YWCA와 같은 비영리 기관은 대기업과 경쟁 혹은 상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기에 앞으로 YWCA 돌봄운동의 방향성과 목적을 더욱 뚜렷하게 가져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YWCA는 지난 수년 간 가사돌보미 등 돌봄노동자의 직업인으로서 인식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표준) 개발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그 결과 지난 해 YWCA 가사지원분야 NCS 개발자로 지정되어 NCS 개발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학습모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돌봄노동자의 사회인식 제고와 처우 개선, 직업전문성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사돌보미의 직무를 NCS 기준으로 분석하고 재편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훈련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가사 돌봄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높여 돌봄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것이다.

지난 반 세기 동안 돌봄노동에 대한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고, 많은 돌봄 노동자를 교육해 사회서비스 공급과 여성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온 YWCA는 돌봄노동 공식화와 사회화를 통해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데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 가족과 회원의 달 공동체 예배

5월 가정의 달과 회원증모의 달을 맞이해 한국YWCA는 말씀 묵상과 나눔, 기도로 이루어진 '가족과 회원의 달 공동체 예배'로 월례 기도회를 진행하였다.

## 말씀 묵상

### 마태복음 10장 37절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 마태복음 12장 46~50절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 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 말씀나눔

(아래의 질문에 대해 잠시 묵상한 후 4~6명이 한 그룹으로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그룹에서 나는 내용 중 모두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여 두세 명이 발표합니다.)

1.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가족)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한다는 YWCA의 목적 아래에서 한 가족이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3.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가정(가족)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 함께 드리는 기도

1.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원형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등과 독단과 폭력이 사라지는 세상을 위해 YWCA 회원들이 힘써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2. 정의와 평화, 생명의 세상을 함께 이루어가는 YWCA 공동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형제요 자매로 서로를 인정하고 화목하며 배려하며, 서로 격려하며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YWCA의 회원증모 활동이 핵 없는 생명세상, 평등과 존중으로 함께하는 세상, 돌봄과 나눔으로 희망의 세상을 이루는 일에 동참할 동역자를 찾고 세우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3. 일본 구마모토현과 에콰도르 등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 아픔에 동참하여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일본YWCA 자매들의 복구 사역에 한국YWCA 회원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협력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권을

지난 2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기준법에서 '가사사용인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과 함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보장하고 4대보험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협약국들에게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가사노동은 근로기준법 '제외' 대상이다.

표대중 노무사, 연합회 돌봄과살림위원회 위원

2015년은 가사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을 정부입법으로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가사노동자에게도 노동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강력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가사노동자(근로기준법에서는 가사사용인으로 명칭하며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근로기준법의 예외로 인정되어 왔던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이 땅에 가사노동을 직업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한국YWCA 연합회를 중심으로 많은 여성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도 정부입법 추진

또한 2011년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가사노동자보호협약이 체결되면서 세계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던 가사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한국YWCA연합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돌봄연대가 최초로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후에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입법활동을 전개하였다.

2015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보호하자는 보호입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쉽게도 고용노동부의 정부입법은 발의되지 못하고 준비단계에서 머물고 말았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겠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끝내 입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가사노동자 보호법안도 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삭제가 근본 방법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는 상당히 고조되었다. 물론 ILO협약 등의 기준이 이루어질 만큼 성숙되었는지는 20대 국회활동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법적 권리로 부여하려는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ILO 가사노동자협약의 기준 전략이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서 ILO협약을 정부가 비준하게 되면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에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

둘째, 가사노동자 보호입법 추진 전략이다. 가사노동자 보호입법 추진 전략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세분화해서 살펴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가사근로자의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과 별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제외를 삭제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는데 공감한다.

다만, 가사노동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적용제외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가사노동자들이 개인 사용자에게 고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연 전면 적용이 타당한 것

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 개인 사용자 책임부여는 공감대 필요

가사노동자의 개념을 '임금, 급료 등을 목적으로 기업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개인의 가정 또는 따로 지정된 장소로 출·퇴근을 하면서 가사도우미, 간병, 보육, 운전 등의 가사업무를 일정기간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자'로 정리할 수 있는데, 결국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용자에게 일정 부분 사용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사회 공감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했던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은 이러한 문제를 비껴가기 위해 사용자 책임을 개인 사용자가 아닌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해서 가사노동자들이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전국 회원YWCA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사노동자들이 8천여 명에 이른다. 이것이 한국YWCA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가사노동자의 보호입법 추진에 관심을 쏟는 이유이기도 하다.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한국YWCA연합회에서는 또 다시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시작할 것이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입법활동 이외에도 가사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부여할 수 있는 입법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아이들을 돌보니 마을이 살아난다

## - 보육 사각지대 돌보는 생명꿈나무돌봄센터

### 편집실

“20명 정원이 안 찰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런데 대기자가 생기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분들까지 있다. 아이들이 여기 오면 밥이 맛있고, 선생님들이 친절해 좋다고 한다. 저도 아이를 하나 더 낳을까 생각한다.”

마흔이 훌쩍 넘은 이장이 애를 더 낳고 싶다는 소리에 박장대소가 터졌다. 지난 4월 28일 논산시 광석면 항월2리에 자리잡은 논산 생명꿈나무돌봄센터 개소식에서 벌어진 풍경이다.

###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다”

생명꿈나무돌봄센터는 한국YWCA가 2011년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지원으로 보육 사각지대인 농산어촌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보육과 교육, 아동복지 서비스는 물론이고 가족통합 지원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다.

주민 5000명이 살고 있는 광석면에 민간지원의 아동돌봄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공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3세부터 10세 미만 어린이들을 돌봐 농산어촌 지역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부모들이 아이 걱정을 하지 않고, 생계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논산YWCA가 주최한 이날 개소식에는 인근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물론이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와 면사무소 관계자, 논산시의회 의장, 논산시 국회의원 당선자까지 방

문해 동네잔치를 방불케 했다. 돌봄센터에 다니는 7명의 어린이들이 옛 교복을 입고, 검정고무신 노래에 맞춰 울동을 할 때는 아이돌 스타 부럽지 않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개소식이 끝나고도 주민들은 돌아가지 않고, 깨끗하게 단장한 돌봄센터 곳곳을 살펴보며 선생님들과 담소를 나눴다. 마을 어른들은 떡, 과일, 음료를 먹으면서 돌봄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깊은 관심을 보였다. 여기저기 웃음꽃이 피어났다. 항월2리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겨버린 여느 시골과는 확연히 달랐다. 생명꿈나무돌봄센터 한 곳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였다.

### 고향 떠난 젊은이들이 돌아온다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조상환 광석면장은 돌봄센터를 ‘마을의 큰 선물’이라고 기뻐했다. 그는 “농촌은 부부 모두 일을 해야 하는데 돌봄센터가 생기니 객지로 나간 젊은이들이 돌아온다고 한다”면서 “농산어촌 지역을 살리려면 생명꿈나무돌봄센터 같은 보육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화 이장도 돌봄센터가 주민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나아가 농촌을 살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딸기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새벽 일찍 하우스에 나가서 일하고, 밤늦게 돌아오기 일쑤다.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집에 있거나 하우스에서 놀곤 했다. 이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배울 수 있도록 돌봐주는 공간이 생겼다. 이렇게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으면 도시로 나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생명꿈나무돌봄센터가 문을 여는데 주민들과 지역기관이 발벗고 나선 것도 결국 아이들이 있어야 마을이 살 수 있고, 마을이 살아야 농촌의 미래가 있기 때

문이다. 광석면 항월 1, 2, 3, 4리 이장들은 정원 20명을 채우기 위해 아동모집에 적극 나섰다. 광석면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 마련에 그동안 사용하던 마을회관을 선뜻 내주었다. 광석면사무소는 돌봄센터 근처 버스정류장이 아동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위치를 옮겼으며 재정, 시설 등도 지원했다.

### 귀신도 머물기 힘들었던 곳, 센터가 되기까지

그러나 돌봄센터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명색이 마을회관이었지만 8년간 사용하지 않으면서 폐가 수준으로 방치됐다. 박수정 논산YWCA 사무총장은 “귀신도 머물기 힘들었던 곳”이라는 표현으로 압담했던 상황을 떠올렸다. 다른 곳에 비해 리모델링 비용이 두 배나 들었다. 농촌지역으로 유입인구는 더 이상 장담하기 어려웠다.

박수정 사무총장은 “YWCA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결단이 없었다면, 공보육시설조차 들어오지 않는 농촌지역에 돌봄센터를 만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한 마을을 살리려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기업 등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논산 생명꿈나무돌봄센터는 교사와 급식조리사 등 3명의 전담인력이 20명의 아동을 돌보게 된다.

2011년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보육사회’를 목표로 시작한 생명꿈나무돌봄센터는 YWCA가 운영하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기업의 대표적 사회협력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현재 제천 두 곳(화산동, 덕산면)과 파주, 하남, 논산까지 5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등 사각지대 보육확산을 위해 추가로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논산 생명꿈나무돌봄센터 개소식

# ‘돈만 벌면 된다’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 ‘돌봄’을 바라보다

여성들이 직업을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부터 YWCA는 돌봄노동을 전문화하고 여성 직업교육을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1966년 서울YWCA에서 시간제 가정부 파견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YWCA 돌봄 50주년을 맞이했다. ‘YWCA 가사돌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5월 10 일(화) 한국YWCA연합회에서 돌봄 회원들과 실무 활동가들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 참석자

사회  
정희주(서울YWCA 부장)  
패널  
김영옥(안산YWCA 돌봄회원)  
김해경(부천YWCA 부장)  
배화수(성남YWCA 돌봄회원)  
이정현(서울YWCA 돌봄회원)  
임영란(부천YWCA 돌봄회원)  
홍성애(성남YWCA 간사)

정희주 : YWCA 돌봄 50주년을 맞아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먼저 어떻게 YWCA 돌봄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배화수 : 지인 소개로 YWCA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성남YWCA 총장님이 왜 이 일을 시작하냐고 물으셔서 ‘돈 벌러 왔다’고 하니 돈 생각만 하면서 일을 하면 몸도 아프고 병이 든다고 했어요. 즐기면서 하라고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6년 차에 접어들니 즐기면서 하게 되고, 자랑하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되었어요.

임영란 : 아이가 다섯인데 마흔다섯 살에 부도가 나서 남편이 잠적을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지요.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했는데 군대 가는 나이가 됐어요. 진짜 어려웠던 시절 YWCA를 만났고, YWCA와 함께 성장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정현 : 30대 후반부터 일을 시작해서 올해로 12년차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은 없어요. 돈을 벌러 온다고 생각하면 힘들지만, 오늘 하루 새로운 가정을 만나 재미있게 일한다고 생각해요.

김영옥 : 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 개발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간 얻은 것이 많은데,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합니다.

정희주 : 돌봄 회원으로 일을 시작하신 경력은 다르시지만, 모두가 돌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YWCA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른 기관에서 가사노동자로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실 텐데, YWCA 돌봄 회원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것 일까요?

김영옥 : YWCA에서는 무엇이든 함께 하는 것이 인상 깊었어요.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고, 나를 바로잡아주는 채찍과도 같은 곳이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함께



하고 싶어요.

이정현 : 기독교단체라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들고, 월례회를 통해 수납정리 등을 전문강사에게 배우는 것이 좋더라고요. 서울YWCA에서는 돌봄 회원들이 관심사별로 여행 동아리, 독거 어르신을 위한 봉사 동아리 등 다양한 소그룹 활동도 하고 있어요.

배화수 : 성남YWCA에서 5월 19일 창립총회를 해요. 협동조합을 준비하다 보니 돌봄 회원들 간에 더 끈끈해지고, 분위기가 좋아진 것을 느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돌봄 회원들의 고충을 서로 알게 되니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런 점들이 늘 고맙지요.

김해경 : YWCA에서 16년째 실무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데, 돌봄 업무를 하면서 일 중심에서 ‘관계 맺음’ 중심으로 제 자신이 변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어제 돌봄 회원 분을 만났는데 서비스 이용자이신 할머니가 유통기한 지난 빵을 주고, 일하는 곳마다 따라 다니면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참았느냐’고 하니 그 분이 우시는 거예요. 저에게 돌봄이라는 것은 업무였는데 이제는 돌봄 회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이 저의 고충이 되는 거예요.

임영란 : 저는 YWCA에서 결속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돌봄 회원들끼리 일본 협동조합 연수를 다녀

오고 나서 더 큰 사명감이 생겼어요.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YWCA의 얼굴이자, 내 뒤에는 늘 YWCA가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정희주 : 가사노동이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사 노동자로 일하시면서 부딪치는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배화수 : 무시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부유한 사람들보다 중간층 30~40대들이 많이 힘들게 해요. 저희는 대걸레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가보면 대걸레가 없다고 손걸레로 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무릎이 아작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해달라고 하시면 막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꼭 참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저쪽 방에 대걸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힘이 쭉 빠져요.

임영란 : 일을 다녀왔는데 가사 서비스 이용자가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일한 결과에 대한 불평사항을 말씀하세요. 그런 문제에 닦혔을 때 감정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청소를 하고 왔는데도 하나도 안 하고 갔다고 사무실로 화를 낸 분이 계셨는데 모멸감이 들었고,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됐는지 몇 달을 가더라고요.

이정현 : 다른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식사를

## 20대 총선 ‘성평등 국회’ 희망을 열다

51명, 17%. 20대 총선 결과 여성의원 비율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대 총선에서 특히 돋보였던 지역구 여성 의원들의 약진을 살펴본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20대 국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여성 당선인을 배출했다. 그러나 세계 100위 안에도 못 든다.”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말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11일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해 한국 여성정치의 현주소를 꼬집었다.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났지만, 세계 여러 나라 정치 수준에 견준다면 매우 미흡하다는 얘기다. 그만큼 한국 여성정치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

정당마다 의원워크숍을 열고 20대 국회 초반전 준비에 여념이 없다. 어떤 정책으로 승부할 것인가 각 당은 정책과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 그만큼 의원들은 물도 올랐다.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데이터가 있다. 그것은 서두에 꺼낸 대로 여성의원의 숫자다. 역대 국회를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홍일점 아니면 그마저도 안 되는 수준으로 여성의원이 존재했으나, 적어도 이번에는 최소 1상임위 1.5 여성의원은 배당될 수 있을 만큼 여성의원이 늘었다. 역대 최대 숫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성인지 통계리포트’에 따르면, 총 지역구 당선자는 26명, 정당별로는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명, 새누리당이 6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이다. 비례대표는 새누리당 여성 당선자가 9명으로 가장 많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7명, 정의당 2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6명, 경기 7명, 광주·전북·경북 각 1명이고, 다른 지역에선 1명도 여성 의원이 당선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여성 당선자는 서울 수도권에서 2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지역으로 갈수록 그 숫자는 급격히 줄어든다. 이 같은 지표는 성인지적 관점의 정치, 성평등 정치는 아직까지는 서울 수도권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는 지역으로 더욱 확산시켜야 할 과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안 주시는 분도 많고, 찬밥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원이나 이사, 위원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많다 보니 이제는 돌봄 회원들이 애완견, 고양이, 심지어는 돼지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돼지에게 유기농 파프리카와 고구마를 챙겨줘야 하는데 동물 관리까지 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많아요.

정희주 : YWCA가 가진 유리한 면이자 어려운 면은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돌봄 사업이 중장년 여성들의 직업 창출 사업이지만, 맞벌이 부부 등 가사서비스 이용자들도 우리가 함께 활동하는 회원들인 중장년 여성들이기 때문이지요. YWCA에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점들이 있을까요?

이정현 : 돌봄 회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장의 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4대 보험이 꼭 적용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YWCA 회원들이 일 잘 하기로 소문이 나서 사설업체로 이탈하는 경우도 많아요. YWCA 돌봄교육은 영성과 정체성, 직무훈련까지 체계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진행해 이탈을 막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김영옥 : YWCA가 사람을 키운다는 말이 참 좋거든요. 나이 든 사람들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성직종 개발을 다양화하는 일도 지속해주면 좋겠습니다.

김해경 : 돌봄 회원들도 현장에서 경험하셨듯 가사는 직무분야나 상황, 환경 등이 다양해서 규정에 맞춰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사 서비스 이용자와 돌봄 회원들에게 적용 가능한 매뉴얼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주 : 돌봄 회원들이 ‘내가 남을 돌보는 것’ 외에

도 ‘서로서로 돌보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또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부천YWCA와 성남YWCA에서 추진하는 돌봄 협동조합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요?

김해경 : 돌봄 협동조합은 당사자 조직으로 직접 출자금을 내는 형태입니다. 지난해 5월 창립한 부천YWCA 돌봄과살림 협동조합은 5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돌보미들의 주인의식이 높아졌어요. 또 협동조합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예비 조합원을 모을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지역 내 일자리도 창출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겠지요.

홍성애 : 성남YWCA는 5월 19일 돌봄 협동조합 창립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봄 회원들과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회원들이 변하는 것을 느껴요.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에서 돌봄 회원들도 협동조합이라는 더 큰 틀에서 우리 사회의 돌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지요.

배화수 : 저도 함께 준비하면서 많은 부담감이 있었고, 다 얘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번 협동조합을 계기로 지역과 주민들이 많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국 52개 회원YWCA도 돌봄 협동조합 형태로 가면 좋겠어요.

정희주 : 오랜 세월을 걸어온 만큼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돌봄과 가사노동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사종사자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여성직종 개발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요. 돌봄 50주년을 맞는 YWCA가 우리 사회에서 가사 노동자들이 법적인 보장을 받고, 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실력과 여성의원 대거 진출**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주목할 포인트가 있다. 국회는 선수로 말한다는 뼈있는 농담이 있는데 실제 선수를 거듭할수록 정책 실력과 정치력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르면 실력 있는 여성의원들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과거에는 남성의원들이 여성의원들을 꽃에 비유하며 들러리로 취급할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기는 곤란해졌다.

실력과 여성의원들이 대거 진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중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대 국회만 해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3선 이상 여성 의원은 이미경 전 의원, 추미애 의원, 박영선 의원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진인 3선 여성 의원이 무려 4명이나 된다. 1987년부터 당직을 맡아온 김현미 의원을 비롯 유승희, 김상희, 김영주 의원은 여성과 노동운동에 전념한 인재들이기도 하다.

이밖에 추미애 의원은 5선이 됐고 박영선 의원은 4선이 됐다. 재선과 초선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추미애 의원의 경우 현재는 당대표 출마로 기울었지만 정치 관계자들은 국회의장 후보로도 꼽기도 했다.

박영선 의원도 4선의 관록을 갖추게 됐기 때문에 당 대표와 내후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출마설이 끊임없이 나온다.

**■ 야권 불모지 강남을 뚫은 전현희 당선자**

초선 가운데는 야권의 불모지 강남을 뚫어버린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당선자가 눈에 띈다. 전 당선인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18대 국회 박지원 원내대표 시절 원내대변인으로 활약한 바 있다.

19대 때는 정동영 후보와의 경선에서 패했지만 꾸

준히 지역을 뛰고, ‘해바라기 여성’ 이미지 전략으로 강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다.

새누리당 중진 중 나경원 의원이 4선이다. 나 의원은 비박계로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낙선했지만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으로 활약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무엇보다 나 의원 역시 내후년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가 1년7개월여 남은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총선 강남에서 조운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누르고 3선에 성공한 이해훈 의원도 눈에 띈다. 이 의원은 경제전문가로 그동안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에도 각을 세우며 활동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그가 무소속으로 밀려난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함께 이른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이념에 따른 어떤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놓을지도 지켜볼 일이다.

이해훈 의원은 여의도에서 이른바 만머느리 컨셉의 정치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가 펼치는 여성정치의 포인트도 짚어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국민의당엔 ‘돌아온 박선숙’이 있다. 박선숙 의원은 DJ정부 시절 춘추관장을 시작으로 환경부 차관, 통합민주당 의원 등 행정과 의회 경험을 두루 갖춘 실력과 여성 정치인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총선과정에서도 유수의 언론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극구 사양했다. 이유는 단 하나. “일로 보여드리겠다는 것.”

따라서 그가 과거에 몸담았던 국회 정무위원회 피감기관들이 좋아 있다가거나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의도 정가에는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울산과 거제, 통영, 부산 등을 중심으로 한 해

운과 조선업계 구조조정이 핫이슈로 떠오른 만큼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등에 대한 박선숙 의원의 여성 리더십이 어떻게 발현될지 지켜볼 일이다.

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박선숙 의원은 금융 관련 정부부처·공공기관 직원들이 뽑은 경제분야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가 다시 국회 정무위원회로 돌아온다면 소득불평등 양극화 문제와 관련된 경제민주화 이슈,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건 공정성장론에 입각한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 진보정당 최초 3선 여성의원 심상정 당선자**

정의당에선 대한민국 진보정당 역사상 최초의 3선 여성 의원이 등장했다는 의미가 크다. 바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얘기다. 그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갈고닦은 진보정책 의제들을 국회 안으로 들고 와서 하나 하나 입법으로 풀어냈다.

심 대표는 지난 10일 <장운선·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해 “이제 국민들께서 심상정이라는 진보정치인을 인정해주시기 시작했다”며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좀더 능력을 갖추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전히 진보정치가 갈 길은 멀지만 심상정이라는 정치인을 3선으로 만들어준 것은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사회에서 진보정치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작다. 따라서 진보 여성정치인을 3선으로 만들어주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의당의 이정미, 추혜선 당선인도 눈길을 끈다. 이정미 비례 당선인은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 테라스로 이름을 날렸고, 추혜선 당선인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출신으로 MB와 박근혜정부에서 후


퇴한 언론정책 특히 해직기자의 복직문제부터 풀겠다는 각오로 편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추 당선인의 경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SBS 노동조합 간사로 시작해 20년간 언론운동 분야에서 헌신해왔다는 측면에서 볼 때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더불어 양대 축을 이루었던 언론운동계 뒤편을 얼마나 실천할 지 주목해봐야 한다.

**■ 여성 정치연대로 한국 정치 바꾸자**

이번 20대 국회 공천 과정에서 여성 당선인이 많이 배출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과거와 달리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콘텐츠 경쟁력이기 때문에 실력을 갖춘 여성이 아니면 견뎌내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무리 여성의원 숫자가 늘어나도 늘어난 만큼 사회변화, 정치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성의원 숫자가 늘어났다는 데만 의미부여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성의원들이 한국 여성정치의 발전과 비전을 위해 특히, 여성이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어떤 정책으로 또 어떤 입법활동으로 말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아무리 수가 늘어났다고 한들 세계 100위 안에도 못 드는 수준이라면 적어도 국제사회에 어깨를 견줄 만큼 여성의원 또는 여성 정치인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 뿐만 아니라 여성 정치인들끼리 서로 홍보하며 깎아내리는 문화 대신 격려하고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이른바 시스템후드를 발휘할 때 훨씬 더 큰 여성정치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대가 중요하다. 여성 정치연대로 한국정치를 바꿀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 ‘청년정책’, 소통과 공감에서 출발

문윤희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총무, 안양YWCA 대학·청년Y 부회장

지난 1월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는 2016년 대학·청년Y 전국 주제로 ‘청년이 주체가 되고 연대하는 사회 만들기’를 정했고, 전국 공동 활동으로 ‘청년 당사자 이슈·정책발굴과 대응, YWCA 홍보단’을 정했다. 2016년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총무로 선출되면서 솔직히 공동 활동에 대한 많은 부담을 느꼈다. 현재 대학·청년Y가 청년 문제를 발굴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고,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도 고민되었다.

그런 걱정 속에서도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가 주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야 하며, 청년들을 위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가 필요했다. 그래서 리더십 교육의 일환으로 전국협의회 운영위원들이 4월 30일(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를 방문하였다.

김희성 청정넷 운영사무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청년들의 요구는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청년들은 생활 속의 불편함, 아픈 경험, 사소한 일을 이야기함으로써 공감과 이해를 얻고 싶어했고, 먼저 그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할 공간이 없다는 사실부터 인식했다고 한다. 그런 청년들에게 청정넷은 소소한 걱정부터 사회에 대한 폭넓은 고민까지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였다.

이를 통해 형성된 이해와 공감의 문화는 청년들이 뒤에서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사회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표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였다. 사소하게만 보이던 청년들의 고민들로부터 정책이 개발되었고 이것이 서울시에 제안되고, 실제로 실행되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방문해 이야기를 듣는 대학·청년Y 회원들


이렇게 청정넷은 청년들이 고민을 토로하는 공간을 넘어, 청년의 내일에 필요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실험하고, 그것이 시의 청년정책과 사업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장(場)이 되었다.

정책 수립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YWCA 안에 있는 청년 회원들의 이야기에 얼마나 귀 기울였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무작정 사회에 무언가를 피력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먼저 YWCA 청년들이 솔직하게 고민을 토로할 수 있는 공간과 이에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청정넷 시즌2 프로그램에는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내부 경쟁도 있었고, 청년들끼리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고 한다. 그래서 시즌3은 정책 개발보다는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좀 더 ‘일상적인 모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속적인 변화의 힘은 관계 즉, 네트워크’에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형성은 공간, 모임주체, 문화라는 요소가 갖춰져야 하는데 네트워크 안

의 신뢰가 쌓여야 유지된다는 것이다.

우리 대학·청년Y는 회원(모임주체)이 모일 수 있는 각 회원 YWCA(공간)가 있을 뿐 아니라 YWCA의 고유한 비전(문화)을 공유하고 있기에 YWCA만의 네트워크는 우리생각보다 더 크고 소중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가 회원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네트워크,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네트워크, 이를 통해 회원들 간의 신뢰와 경험이 쌓여가는 네트워크가 되기를 바랐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만드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임, 토의, 합의 자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배우는 하나의 ‘시민교육’이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YWCA 청년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민, Y다운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들이 모이고 대화하고 생각을 모으는 과정을 기다려야 한다. YWCA가 그 합의를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지지해주며, 그 목소리가 사회에 반영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아르바이트나 대학생 주거 같은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깨달았어요”




**정하연**  
(광주YWCA)

“회원YWCA에서 남는 공간을 일정 기간 지역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해서 대학청년Y 회원들과 지역 청년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우태**  
(청주YWCA)

“우리도 이 일들을 이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속한 지역의 청년단체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청년들과 교류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어요”



**정성민**  
(울산YWCA)

“올해로 4년째 Y-틴과 대학청년Y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늘 참여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Y가 될 수 있게 노력할 거예요.”



**안찬혁**  
(안산YWCA)

# “저널리즘 본령을 지키려는 방송 제작진에 힘되는 일” - 20주년 맞은 좋은 TV프로그램상

한국YWCA연합회가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을 4월 19일(화) 오전 11시 서울YWCA 강당에서 열었다.

### 편집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은 시청자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고, 방송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의식을 심어주고 격려하고자 1996년 제정한 상으로 성평등과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크게 기여해왔다.

이번 20주년을 맞아 역대 수상작 중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청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프로그램이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 베스트 10'으로 선정했다.

시상식에는 베스트10에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해 대상을 받았던 JTBC 보도특집 '여객선 세월호 참사 보도' 앵커인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과 역시 베스트10에 꼽힌 CBS <블로그 다큐> '용산, 아벨의 죽음'의 한용길 CBS 사장, 여성 미디어를 대표해 김효선 여성신문 사장을 비롯해 방송계, 여성계,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참석했다. 또한 전국 52개 지역 회원YWCA 회장단 100여 명이 특별히 참석해 이번 '좋은 TV프로그램상'의 20주년을 축하했다.

축사에서 한용길 CBS 사장은 “끔찍한 사건사고가 들리는 시대에 생명존중과 평등, 사회 관심을 불러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고,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은 “저널리즘 본령을 지키려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있고 그분들을 잊지 않고 YWCA가 상을 주고 있다는 것은 방송 제작진들에게 훨씬 더 힘이 되는 일”이라며 깊은 울림을 더했다.

주철환 좋은 TV프로그램상 심사위원은 심사보고에서 “알게 모르게 '폭행'과 '재앙'은 우리 주변을 엄습하지만 세상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 상을 통해 끝까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가면서 YWCA 정신을 표현해야 할 것”이라고 상의 취지를 설명했다.

1996년 시상식 제정부 터 지금까지 20년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경순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과 1980년대부터 미디어 모니터링 활동을 펼쳐 '좋은 TV프로그램상'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양성평등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는 서울YWCA 대중매체 양성평등 미디어모니터회에 공로상을 수여했다.

제20회 대상에는 그동안 가려져온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을 추적 발굴해 여성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 EBS <다큐프라임>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또 하나의 독립운동' 3부작이 선정됐다.

EBS <다큐프라임>은 여성 독립운동가라면 '유관순' 밖에 모르는 현실에서 1년여 간 4개국을 훑어 여성 독립운동가의 발걸음을 쫓은 제작진의 열정으로 여성들이 사회변혁의 주체로 활동한 기록을 찾아냈다. 특히 남성 중심의 독립운동사에서 탈피해 무력항쟁, 비밀결사 활동 등 여성 독립운동 활약상의 발굴로 여성 리더십 개발과 확대에 기여했다.

성평등 부문상에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일깨우는데 이바지한 SBS <8뉴스> '여자친구 4시간 감금폭행한 의전원생 벌금형 논란' 연속보도가 선정됐다.

SBS는 지난해 11월 28일 첫 보도를 시작으로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피해 여성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실태를 잇따라 고발했다. SBS 보도 이후 올해




제20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수상자들과 참석자들

2월 경찰은 데이트 폭력 근절 전담팀을 만드는 등의 후속 대책이 나왔으며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성 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

생명평화 부문상에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끝나지 않은 재앙, 후쿠시마 5년 현장을 가다' 2부작이 뽑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5년을 맞아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육지로는 사고 원전 반경 20km 이내까지 현장취재를 시도했고, 국내 언론사 최초로 그린피스 탐사선을 타고 원전 2km 바다까지 접근하는 등 탐사보도 정신이 돋보였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사태 종결에도 핵사고 이후 재앙은 계속 되고 있는 사실과 일본산 먹을거리의 위험성 등 감춰진 진실을 알려줬다.

특별상에는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선정됐다. 역대 케이블채널 최고 시청률(18.1%)을 기록하며 세대를 불문하고 온 가족을 TV 앞으로 모았던 이 드라마는 공동체의 진정성을 보여줬다. 특히 80년대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조차 공감 가는 유대와 연대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더불어 삶'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우리 사회가 1cm라도 전진하는 계기가 된다면”

### 대상

EBS <다큐프라임> 광복70주년 특별기획  
‘또 하나의 독립운동’ 3부작

“독립유공자 1만 4천명 중 여성은 불과 250명이었다. 2%도 안 되는 수치다. 처음에는 여성운동을 독립운동의 조력자로 기획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만들다보니 여성들이 조력자가 아닌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독립운동을 해왔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을 ‘또 하나의 독립운동’으로 명명했다. 여성들이 여러 독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사회변혁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던 참신한 소재들을 발굴하겠다.” (이원혁 PD)

### 성평등 부문상

SBS 8뉴스 ‘여자친구 4시간 감금폭행한  
의전원생 벌금형 논란’ 연속보도

“처음 피해자 사연을 접한 곳은 인터넷 카페였다. 폭행이 끝이 아니라 폭행 이후에 교내에서 피해자가 도망다녀야 하는 현실을 올린 글을 보고 우연한 기회가 닿아 취재를 시작하게 됐다. 조직 내에서 약자라는 이유로 도망을 다니고 더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 더 큰 폭력이자 사회문제라고 인식했다. 그런 부분을 고발하고 싶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우리 사회가 1cm라도 전진하는 계기가 된다면 기자로서 보람될 것 같다.” (김종원 기자)

### 생명평화 부문상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끝나지 않은 재앙, 후쿠시마 5년 현장을 가다’ 2부작

“우리 프로그램이 탐사보도를 잡아가는 단계에서 큰 상 주셔서 감사하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그곳은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왜 지켜내지 못하는지 생각할 필요성을 느꼈다. 일본 언론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가) 제대로 방송되고 있지 않아 탐사보도를 시작했다. 놀랍게도 현장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진실과 개인들을 뭉치게 만들고 있었다. YWCA가 오랫동안 탈핵운동을 해오고 계신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을 이끌어 가시면 저희도 보도에 힘쓰겠다.” (임유철 PD)

### 특별상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이번에 상을 많이 받게 됐다. 특히 이 상은 ‘좋은 프로그램’이란 말 자체의 무게감이 부담스럽고, 계가 잘해서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상이다. 늘 대중성과 작품성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응답하라’는 저에게 고민의 힌트를 준 고마운 작품이다. 핵심은 사람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도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신원호 PD)

### 공로상

## “매년 수상소감을 들을 때마다 감동”

[인터뷰] 산파역부터 20년간 기여한 이경순 위원



- 20주년을 맞는 소  
회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감개무량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상을 처음 만들 때는 이렇게 오래 지속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되돌아보면

이 상이 폐지될 위기도 있었어요. 시상식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몇몇 이사, 위원들이 행사를 중단하자고 하신 적도 있거든요. 시상식에 드는 비용보다 상을 받은 방송사가 수상 소식을 보도할 때 YWCA가 얻는 홍보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설득해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지요.”

- 처음 기획하고 만들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 상을 제정하던 1996년은 상업방송(SBS)이 처음 출범해서 방송사 간에 시청률 경쟁이 치열했지요.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폭력성에 관한 비판과 청소년에게 미

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사회 우려도 매우 높았어요. 그 당시 사무총장이셨던 강교자 선생님과 홍보출판실무자 차경애, 황혜숙 선생님들은 ‘잘못한다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잘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더 나은 방송 환경을 만드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셨지요. 그래서 당시 미디어 모니터 활동을 이끌고 있던 김기태(호남대학교 교수) 박사와 저한테 그런 취지의 상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셔서 산파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 20년 동안 시민단체에서 지속해 왔고, 방송 제작진들도 의미를 크게 두는 상입니다. 좋은 TV프로그램상에 바라는 점과 미디어 환경에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지요.

“매년 시상식에서 가장 감동적인 시간은 수상자들의 소감을 듣는 순서입니다. PD를 비롯한 제작진들이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고뇌하고 고생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 상을 20년간 이끌어온 참된 보람을 느낍니다.

방송 전파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국민 모두의 공공재산입니다. 방송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그 점을 잊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방송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로상

## 서울YWCA 대중매체 양성평등 미디어모니터회



“우선 좋은 TV프로그램상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수개월동안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 애써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각

방송사 제작진의 노력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YWCA 대중매체 양성평등 미디어모니터회는 지난 10여 년간 청소년,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활동하다 2013년부터 본격적인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활동을 해왔다. 한국양성평등진흥원 의뢰를 받아 성 차별적인 프로그램에 문제를 제기하고, 성 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바람직한 미디어 모니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충성의 열매 맺기를

전국 회원YWCA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였다. 4월 19일(화)부터 1박 2일 열린 전국회장단 연수에서 YWCA 정체성과 운동을 배우고 지역에서 운동성을 기르기 위해 함께 교류했다.

### 김수연 연합회 Y0카카데미위원회 간사

이번 YWCA 전국회장단 연수는 지역에서 탈핵 생명운동과 성평등 운동을 펼치고자 하는 YWCA 회장단을 격려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연합회는 올해 연수를 진행하며 '제20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에 특별한 손님으로 YWCA 전국회장단을 초청해 시상식에 참석하는 순서로 시작했다.

전국 45개 지역에서 모인 89명의 회원YWCA 회장과 부회장은 시상식 이후 연합회 강당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 한 문장으로 각자 소개를 하고, 서로를 환영했다. 버들캠핑장으로 이동한 전국회장단은 1박 2일동안 회원YWCA에서 회장단 역할을 이해하고, 앞으로 사명을 다짐했다.

여는 예배에서 한양대학교 교목실장인 이천진 목사는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돌이켜서 회개로부터 오는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열매 맺는 YWCA 전국회장단이 되기를 기도하였다. 이어진 영성훈련에서도 충성으로 맺어진 열매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한 충성의 YWCA 회장단이 되기를 강조하였다.

이명혜 회장은 전국 YWCA 회장단에게 "회장, 부회장이라는 무거운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소명으로 여기고 결단과 책임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선배들이 물려주신 이 아름다운 버들캠핑장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일정이 되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국YWCA 운동, 지역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서는 각 회원YWCA 지역의 필요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공유했다.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각 회원YWCA를 사랑하기도 했다. 또한 각 회원YWCA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도 공유했는데, 주로 청

소년 회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젊은 층을 이사로 영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회원증모에 대한 부담, 위원회 활동의 부족 등을 공통적인 고민이자 과제로 내놓았다.

YWCA 전국회장단은 지역과 회원YWCA 활동가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와

섬김으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지도력 성장을 위한 협력 등 구체적인 실천과 나눔의 역할을 다짐하였다.

또한 YWCA 목적과 정체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을 돕고, 지역에서 더 많은 잠재적 회원들이 YWCA 운동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YWCA 이해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들의 숨은 재능을 발굴하는 등 회장단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둘째 날 주제 강연을 맡은 김은주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성평등 운동 패러다임을 강조했다. 김은주 소장은 "세계 여성의 날 테마를 '2030년까지 50대 50의 지구를 만들자 : 양성평등을 위한 도약'으로 선포하였다. 이때 반기문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유리천장을 깨서 그 조각이 용단처럼 쌓이게 됐으며 이제 그 조각과 과거의 편견을 쓸어내야 여성들이 새로운 한계를 넘어 전진할 수 있다고 기념 메시지를 전했다. 이때 그 자리에 있던 세계 여성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쳤는데, 한국 여성들의 삶을 되짚어보



YWCA 전국회장단 연수 참가자들

며 이 수많은 유리천장을 깨서 그 조각이 우리 주위에 용단처럼 쌓여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이 있고 그것을 깨기 위해 무수히 많은 여성들이 노력을 하지만 깨어지지 않은 채, 금도 가지 않은 채 유리천장이 너무 많아 조각이 용단처럼 쌓여 있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독교여성운동을 하는 YWCA가 남성과 여성 모두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을 갖고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평화운동을 하고 있는 YWCA가 북한여성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2016 YWCA 전국회장단 연수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정의, 평화,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온 YWCA 선배들의 헌신적인 삶과 그 열매를 돌아보고, 우리 시대의 역사적 사명을 다짐하는 일정이었다. YWCA 회원대표로서 YWCA의 방향과 역할을 진솔하게 고민하고 뜨거운 눈물로 함께 기도한 회원YWCA 회장, 부회장들을 통해 각 회원YWCA와 지역에 희망의 꽃씨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한다. 

## 50년을 돌아보며 100년을 꿈꾸다

춘천 지역여성들을 위해 활동해온 춘천YWCA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춘천YWCA는 지난 4월 26일(화) 창립 50주년 기념예배와 '50년사 - 여성의 등대 되어 길을 비추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 이연옥 춘천YWCA 이사

춘천YWCA는 1966년 3월 17일 창립하였다. 초대 회장을 지낸 최연실 회장은 여성의 다양하고도 풍성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며 춘천YWCA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16년 4월 26일(화) 춘천YWCA는 한국YWCA연합회 회장단과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천YWCA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는 1부 기념예배와 2부 기념식으로 진행됐다. 기념예배는 춘천YWCA 이사들과 회원이 모여 특별 찬송을 드리고, 춘천 동부교회 김한호 목사가 '부업의 개조'라는 제목으로 한국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지대함을 성경 속 여성들의 사례를 통해 말씀을 전했다. 윤기숙 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2부 행사에서는 청소년들, 특히 어린이들의 경쾌한 춤과 축하 노래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춘천YWCA 표석영 회장은 기념사에서 "시대의 아픔과 불의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땀 흘리며 헌신의 길을 걸어왔다"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지난 50년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섬기며 생명과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한국YWCA연합회 이명혜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금까지 춘천YWCA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성의 힘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체적이고 풍성한 삶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양성하고자 애쓰는 춘천YWCA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여성 단체로서 돌봄과 살림의 현장에서 헌

력을 예방하는 성 평등 사회를 선포했다.

유지은 청년 대표가 '미래'를 주제로 주체성과 연대성을 확립하는 청소년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강영란 돌봄회원 대표가 '소통'을 낭독하며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돌봄 사회를 이루어나갈 것을 선포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빛의 세상을 위해 정진하겠노라고 힘 있게 선포한 가슴 벅찬 시간이었다.




1966년 3월 17일 춘천YWCA 창립총회

신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여성 사회교육, 생명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것과 앞으로도 정의, 평화, 생명운동을 하며 동시에 아프고 소외된 곳을 찾아 생명의 기운을 전하는 일에 춘천YWCA가 앞장서 달라고 축하했다.

이어 춘천YWCA의 50년 역사를 돌아보는 동영상을 감상했다. 50년 전 열악한 환경에서 여성의 설 자리를 확립하고자 시작했던 춘천YWCA. 그 작은 시작에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활동의 영역을 넓히며 여성의 삶을 고양시키기 위해 애쓰며 성장해온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숙연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느꼈다.

50년 역사를 압축하여 보여준 영상을 감상한 후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평등과 존중의 공동체 사회를 주제로 비전 선포가 이어졌다. 이번 50주년 기념 비전선언문에서는 '평화', '평등', '미래', '소통'을 키워드로 차혜자 중경회장이 '평화' 선언문을 낭독하며 탈핵 에너지 자립 사회를, 정수경 교육생 대표가 '평등'을 낭독하며 여성폭

이날의 행사 중 절정은 '50주년 기념 책자 증정식'이었다. 지난 세월 춘천YWCA가 이루어온 걸어온 행적을 모아 <춘천 YWCA 50년, 여성의 등대되어 길을 비추다>를 발간했다. 이 책을 표석영 회장이 백명임 중경회장과 권혁희 2대 사무총장에게 증정하는 식순으로 진행했다. 50주년 축하 떡 나누기에 이어 최소은 첼리스트와 권용석 피리 연주자의 축하 연주를 감상하고 폐회 선언으로 기념식을 마쳤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듯 50년을 돌아보며 춘천YWCA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세우고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기독교여성공동체로서 사명과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며, 밝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미래사회를 위해 더욱 힘을 모아 정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던 그 최초의 모습처럼 온화하고 따뜻한 세상을 위해 춘천YWCA가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될 것이다. 



춘천YWCA가 2016년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 “어지러운 세상 빛내는 하나님의 등대가 되길”

2016년 '원로에게 듣는다'는 회원YWCA 자문지도자 선배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코너다. 김신옥 대전YWCA 증경회장을 유덕순 대전YWCA 사무총장이 4월 28일(목)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



## 김신옥 대전YWCA 증경회장 약력

- 1962~2001 대전YWCA 이사, 위원
- 1971~1978 대전YWCA 회장
- 1979 대전YWCA 공천위원장
- 1982~1986 대한YWCA연합회 실행위원
- 1991 대통령 표창 수상
- 1992 법무부 장관 표창 수상
- 1995, 1997~1999 1997~1999 대전YWCA후원회 위원장
- 1996 대한민국 교정대상 박애상 수상
- 2002~현재 대전YWCA 명예이사
- 2002 월남장 교육부문 수상
- 2003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 2011 대전YWCA 40년 봉사상

- 세계적인 인명사전 「Who's Who?」 (2000년), 「New International of the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 (2002년) 등재

**유덕순 :**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61년 대전YWCA에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처음 인연은 어떻게 맺었는지, 미국에서 돌아오신 뒤 활동을 다시 하실 때는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신옥 :** 1947년 월남해 이북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영락교회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기숙사에 있다가 갈 곳이 없어 YWCA를 찾아 갔는데 청년들에게 기꺼이 좋은 방을 내주었어요. 당시 철없는 행실을 하던 일본 유학생들이 박순천, 황애덕씨 등 YWCA 지도자들의 인격에 감화받아 변화된 일을 보며 'YWCA는 청년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구나' 하는 인식과 함께 YWCA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6.25전쟁 후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큰 동기를 주었지요. 그뒤 대전에 내려와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의 수공예 수업을 위해 강사를 찾던 중 대전YWCA에서 각종 수공예를 활발히 가르치고 있던 박근녀 총무를 강사로 모시게 되어 대전YWCA와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덕순 :** 대전YWCA에서 40년 넘게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가장 보람 있었고,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지요?

**김신옥 :** 회장 재임 당시 대전YWCA 중앙도로 주변 조그만 적산가옥을 매입해 힘겹게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쳐가던 중 그것이 사유지로 바뀌면서 다시 매입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막막한 일이었지만 회장으로서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

고, 사재를 털어 솔선해 헌금하고, 대전시 기관장들과 YWCA 이사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다녔어요. 결국 불가능해 보였던 회관의 재매입을 무난히 할 수 있었고, YWCA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회장 재임 중에는 교도소 선교활동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매주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뜨거운 감동으로 설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새사람으로 변화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단지 말씀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매주 정성껏 떡과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사랑으로 보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덕순 :** YWCA 활동뿐 아니라 대성학원을 설립하신 교육자로서,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후 사역자로서, 대전교도소 비전향 장기수들을 돌보아온 여성운동가로서 세계적으로 큰 인정을 받는 지도력이시지요. 회장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사람을 키우는 일'은 어떤 신앙의 흐름에서 이어져온 것인지요?

**김신옥 :** 고등학교 3학년 때 헬렌켈러 박사가 학교에 와서 강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는 말할 수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헬렌켈러가 그의 선생님 설리번의 가슴에 손을 대니 그(헬렌켈러)의 마음이 선생님(설리번)께 전달되어 선생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설교가 마치 천사의 말처럼 들렸고, 큰 감동을 받아 학생들이 영영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은 아이누족 족장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도 기도의 사람만 있으면 해방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차올랐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YWCA에서도 사회를 훌륭히 만들어 갈 인재들을 길

러내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활동해 왔습니다.

**유덕순 :** 박순천, 황애덕 선생님을 본받고 싶은 지도력으로 언급하셨는데, 그분들의 어떤 점을 본받아 활동하셨는지요?

**김신옥 :** 그분들이 청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큰 사랑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섬김이 너무도 지극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든든함에 모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믿는 것뿐 아니라 올바른 삶의 태도를 몸소 보여주었기에 청년들이 그분들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고 그 영향력과 지도력이 정말 훌륭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라고 느껴 제 마음 속에 깊이 새기고, 저도 그런 사랑과 섬김으로 YWCA에서 활동하기를 힘쓰며 노력했습니다.

**유덕순 :** YWCA가 100년의 역사 속에서 이것만은 꼭 붙잡고 가야 한다는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김신옥 :**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꼭 붙잡고 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YWCA에서 'C' 정신은 YWCA 운동의 기반입니다. 이 기반이 흔들린다면 진정한 YWCA 운동이 이루어질 수 없겠지요.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중요한 일일수록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YWCA도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모든 일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저의 모든 삶 가운데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동질적인 사람을 모으며, 기르며, 어지러운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등대로서 YWCA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 결혼 이주여성들의 봄나들이

## - 진주YWCA 다문화교육부

회원YWCA 활동현장을 찾아서는 회원YWCA 부속시설, 동아리, 소모임 등 다양한 현장을 찾아 YWCA 회원들의 활동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진주YWCA 다문화교육부의 봄나들이 현장을 찾았다.

### 고명정 진주YWCA 다문화교육부 팀장

유난히 찬란한 봄날, 5월 12일(목)은 진주YWCA 다문화교육부 봄나들이가 있는 날이다. 한국어 수업<sup>1)</sup> 1차 종강 후 단계별 시험을 치르고 오른 소풍길이라 발걸음이 더욱 가볍다. 한국말도, 한국 생활도, 진주 사람들도 아직은 낯선 결혼 이주여성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운 일상 중에 떠나는 작은 일탈이라서 그런지 다들 설레는 표정이다.

오랜만에 한껏 멋을 내고 사진도 많이 찍고 싶은데, 실무자들은 편안한 여행이 최고라고 '구두 신지 말고 운동화 신으라', '짧은 치마 말고 편한 청바지 입으라'고 당부를 거듭했다. 최종 소풍날이 될 때까지 참가자 명단이 바뀌기를 수차례, 당일 아침이 되니 신청자는 보이지 않고 명단에 없던 참가자는 갑자기 나타나기도 해서 조별 참가자와 인원을 수정하고 이름표를 다시 쓰고 차에 오르는 북새통을 치르고 나서야 버스가 출발했다.

진주지역 기업인 (주)GSE도시가스와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가 후원하는 이주여성 소풍은 올해가 벌써 8회째로 해마다 5월 이맘때쯤이면 다문화교육부 90여 명의 대식구가 함께 가는 봄나들이 프로그램이다.

진주YWCA 다문화교육부에서는 지역 내 이주여성들과 '함께 웃는 다문화이야기'라는 주제로 한국어교실, 한국사회 이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하는 문화강좌를 진행하고,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키다리 프로그램 등도 진행하고 있다.

차차 일상에 적응하며 한국어수업, 출산과 양육, 취업 등 빠듯한 한국에서의 생활을 씩씩하게 살아내고 있는 이주여성들에게 날마다 만나서 공부하고, 상담도 하고,

1) 2012년부터 진주YWCA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PP)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KIPP 한국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 경험을 하는 진주YWCA는 어느새 친숙한 공간인 되었고,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가는 여행은 즐겁고도 설렌다.

올해 여행지는 전남 곡성에 있는 섬진강 기차마을이다.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색깔 조별 이름표를 단 진주YWCA 이주여성들이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정원에 꽃같이 가득하다. 증기 기관차 안에서 옛날 학교 교련복을 입고 음료와 과자를 판매하는 흥겨운 아저씨는 10여개 나라 출신 새댁들에게 만국공통어로 함께 놀자고 손목을 이끈다. 증기기관차는 소박하고도 정겨운 섬진강 줄기를 따라 달려 어느덧 종착역인 가정역에서 경적소리를 내며 멈춰 선다.

유난히 사진 찍기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이주여성들에게 봄소풍은 어디든 즐겁다. 하루 동안의 짧은 여행이기에 오가는 버스안의 시간도 최대한 활용하여 소풍 기분을 만끽하도록 도왔다. 그래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가는길 오는길'이다.

올해 '가는길' 프로그램은 제비뽑기로 같은 답을 고른 참가자들끼리 짝지가 되는 짝지찾기를 하고, 그 중 몇몇 커플은 행운에 당첨되어 커플선물을 받도록 했다. 행운찾기는 '베트남 출신, 85년~88년 사이 태어난 사람?', '네팔 출신, 이름이 여섯글자 이상인 사람?' 등

의 쪽지를 임의로 뽑아 질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짝지가 같이 상품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베트남 이주여성 팜티라안, 중국 이주여성 김향자, 네팔 이주여성 베르아르 카멜라, 스페인 이주남성 아드리안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다.

소풍 참가자가 해마다 바뀌는 것처럼 '가는길' 프로그램은 매년 달라지지만 '오는길'은 해마다 똑같다. 함께 모이면 노래와 춤을 즐기는 것은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통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주여성들이 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를 때면 수업시간에는 절대 안 되던 한국어 발음이 노랫말 가사에서는 유창하게 터져 나와서 한국어 교사들이 깜짝 놀란다.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과 온종일 많이 웃으며 다녀온 하루 간의 짧은 나들이라 참가자들이 많이 아쉬워했다. 하지만 버스가 우리들 삶터인 진주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집에 전화를 하고, 남편과 시부모님께 도착 인사 전화를 드리는 이주여성들의 모습이 씩씩하고도 고맙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웃는 진주YWCA 다문화교육부는 이들이 있어서 든든하다. 이주 여성들의 앞으로 삶에도 오늘과 같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한 봄날이 진주YWCA 안에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YWCA와 YMCA가 한 가족으로 활동하는 나라들

## 이제 연합회 국제협력위원회인턴

한국YWCA를 포함한 대부분 회원국은 YMCA와는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지만, 세계 120개 회원국 YWCA 중에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스위스,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까지 8개국은 YWCA-YMCA 협력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양성, 관용, 상호존중, 인류에 대한 포용성 등 기독교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회원운동체로서 YWCA와 YMCA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8개국 중 덴마크와 스웨덴, 스위스 YWCA-YMCA에 궁금한 이야기를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이야기를 독자들과 함께 나눈다.

### ■ 스웨덴 : 연합운동체로 활동한 첫 나라

YWCA와 YMCA 연합운동체로 활동한 첫 국가가 스웨덴으로 알고 있다. 1966년 당시 스웨덴은 여성인권 관련 법적 권리가 앞서가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특히 우리는 여성인권 운동을 위해 남성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YWCA와 YMCA가 연합운동체를 시작했다. 이를 추진한 분이 당시 활발하게 YWCA 운동을 했고, 세계YWCA 3번째 회장이기도 한 아니타 안데르손(Anita Andersson)이다.

보통 가족 단위로 YWCA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데 YW-YM 협력 이전에 여성 회원들은 YWCA에, 남성 회원들은 YMCA에 참가해서 가족 단위로 함께 참여할 수가 없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두 조직을 합친 이유도 있다. 함께 합치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다. 꼭 '이것은 YWCA의 일, 저것은 YMCA의 일'로 나눠서 하지 않는다.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남녀노소 모두 여성인권



덴마크 YWCA-YMCA 회원들

신장을 위해 적극 관심을 두고 참여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같은 의미에서 여성의 문제만을 고심하기보다는 여성을 포함한 모두가 잠재력을 발휘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의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계YWCA에서 지향하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비판이 있기도 했다. 그래서 여성주의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2015년 스웨덴에 Y 여성주의 운동(Y Feminist Action<sup>1)</sup>)이라는 새로운 회원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 알렉산더 클레멘스 사무총장

### ■ 덴마크 : 하나의 운동으로 시너지 효과

덴마크 YWCA와 YMCA는 서로 돕고 함께 일을 할 때가 많았는데, 협력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 1976년 연합운동체 활동을 시작했다.<sup>2)</sup> 명칭으로는 두 조직처럼 보이지만, 덴마크 YWCA-YMCA는 하나의 운동을 진행한다. 최근에는 YWCA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한 'YWCA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로 진행될 이 프로젝트는 세계 각국의 YWCA에서 우리가 참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탐색하고, YWCA의 정체성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그릿 크리스텐센 국제총무

### ■ 스위스 : 남녀 참여비율이 다른 것은 보완해야

스위스 YWCA와 YMCA의 연합운동체를 제일 먼저 원했던 것은 회원들이었다. 독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YWCA와 YMCA의 주된 활동이 스카우트이다. 비슷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역 연합을 원했고, 1973년 5개 YWCA와 YMCA 회원 그룹이 모여 '독일어권 스위스 YWCA-YMCA 연합회'를 만들었다. 이후 25

년간 YWCA와 YMCA의 협력이 점차 늘어났고, 1998년 스위스 YWCA-YMCA로 연합했다. 조직 구조가 덜 복잡해졌고, 우리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기부자와 소통할 때에도 더욱 쉬워졌다.

연합회에서는 우리 회원 단체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나 유럽 YWCA와 YMCA나 세계 YWCA와 YMCA와 소통하는 일을 맡아서 한다. YWCA와 YMCA는 분리된 프로그램이나 임원이 있지 않고 하나의 단체로 사역을 한다.

예외가 있다면 YMCA 병역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로 남자 군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스위스에서는 한국처럼 남성들이 군 복무가 의무적이기 때문에 군인을 대상으로 영적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보(Vaud)'라는 불어권 지역에서는 YMCA 없이 YWCA 회원으로만 활동하고 있는데, 연합회 차원에서는 협력하여 활동하지만 YWCA만 남아 있는 지부도 있다.

우리 회원 단체에 젊은 여성 리더들이 많이 있지만 여자 청소년들과 젊은 여성들의 필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스위스에서 여자와 남자는 동일한 기회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성별이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의사 결정을 하는 지위에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비율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대부분 지역 연합회에서는 여성들이 동일한 숫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전국연합회 위원회에서도 나만 유일한 여성이다. 이런 부분은 YWCA-YMCA가 연합함으로써 보완해야 될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 클라우디아 스어그 국제협력 대표

1) <https://yfeinistaction.wordpress.com/>

2) 월간(한국YWCA) 2004년 9월호(통권 414호) 세계YWCA에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 그분이 나를 '안다'

## 영화 <부활 Risen>

최은 영화평론가 · 영상예술학박사

그리스도의 고난이 영광스러운 것은 부활의 승리 때문이다. 부활이 없는 고난은 고통이고 공포이며, 최선의 경우 위대한 희생일 것이다. 극사실주의로 묘사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활을 모르는 누군가에게는 그저 하드코어 잔혹영화일 수 있겠다는 불편함은 멜 김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남긴 큰 아쉬움 중 하나였다. 2004년 이래 이 영화는 마치 대체 불가능한 관례처럼 가장 참혹한 장면을 중심으로 편집되어 부활절 칸타타의 배경 이미지로 사용되곤 했다. 영화에도 부활절 예배에도, 특히 어린 청중에게는 더욱 못마땅한 일이다.

케빈 레이놀즈의 영화 <부활>(2016)은 현명하게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서사를 멈춘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했다. 너희가(우리가) 메시아로 믿었던 그리스도는 비참하게 죽었다. 이제 어떻게 할 텐가? 상당히 직설적이지만, 고통 넘어 부활이 있듯이 회심 이후 증인된 '삶'이 있다고 말해주는 영화여서 고맙다.

### ▣ 빌라도의 오른팔

클라비우스 아퀼라 발레리우스 나이저(조셉 파인즈)는 로마의 호민관이었다. 그가 맡은 일은 예루살렘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었지만, 실상 그는 총독 빌라도(피터 퍼스)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해결사이자 자타가 공인하는 그의 오른팔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날도 클라비우스는 빌라도에게 호출되어 갔다. 유대인들의 폭동을 막 진압하고 돌아온 후여서 심신이 지쳐 있고 온몸이 피범벅이었지만 그는 곧바로 골고다로 출동해야 했다. 클라비우스에게는 이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다리를 부러뜨려 가능한 빨리 이 성가신 일, 즉 처형을 마무리지으라는 명령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 나사렛사람의 추종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 운운하는 것을 막아내는 일.

최은 영화평론가는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화이론 전공(석사, 박사)을 마치고, 2005년 계간 <영화 언어>에 신인 평론으로 등단했다. 청소년과 성인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고와 강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대인 '광신도들'이 예고했던 대로 예수의 시신이 사라지면서 일이 복잡해진다. 시신을 빨리 찾아내야 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얼마 후면 유월절이고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은 소요 없는 현상유지를 원했으며, 무엇보다 로마 황제가 곧 예루살렘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식민지 변방에 복무하면서 로마 진출을 꿈꾸었던 야심가 클라비우스에게 이것은 위기이기도 했고 기회이기도 했다.

성경 서사영화로서 로마군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부활을 정면으로 다룬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클라비우스에게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로마 시민권을 지닌 박해자였던 사울, 즉 바울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클라비우스가 열두 제자들의 무리에 섞여 있는 것은 뒤늦게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의 이미지에 다를 아니다. 무엇보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 ▣ 대열을 이탈하고, 갑옷을 벗고, 반지를 빼기까지


따라서 참신하면서도 익숙한 이 성경 서사영화의 가장 큰 미덕은 의외로 부활의 증거를 제3자의 객관적 시점으로 제시하고 논증하는데 있지 않다. 오히려 로마 호민관인 클라비우스가 강력한 부르심의 '당사자'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과정이 훨씬 설득력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클라비우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빌라도를 떠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지 빌라도의 명을 거슬러 섬길 '주인'을 바꾼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클라비우스는 젊은 날의 빌라도를 닮았고, 클라비우스에게는 그를 모델로 삼고 따르는 부관 루시우스(톰 펠튼)가 있었다. 빌라도-클라비우스-루시우스로 이루어진 연줄, 즉 성공이 보장된 안정된 노선을 이탈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따

르는 데 첫째 조건이었다. 마치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야 했던 것처럼.

갈릴리로 가는 제자들을 따라가면서 클라비우스는 로마군인의 갑옷을 벗는다. 자신이 섬기던 전쟁의 신 '마르스'를 벗어버린 것이라고 보아도 좋겠다. 이윽고 그가 마지막으로 내려놓은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표식이 될 만한 호민관의 반지였다. '증인'으로 사는 데에는 틀림없이 방해가 될 만한 그 무엇.

그가 반지를 포기하기 전의 일이다. 제자들과 한 무리에 있었지만 늘 걸돌던 클라비우스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마지막 밤에 비로소 예수님과 독대할 기회를 얻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클라비우스에게 예수님이 물었다. 평화, 즉 죽음이 없는 일상을 원하는 것 아니냐고. 놀랍게도 그것은 빌라도와 대화에서 클라비우스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답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전쟁과 살육의 현장에서 피비린내와 살타는 냄새에 찌들어 살았던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승리도 명예도 지위도 아닌 안식이었음을 그가 만난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가 몹시 지쳐 있다는 것도.

요컨대 이 모든 내려놓음과 버림들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다고 단번에 실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영화 <부활>은 말한다.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아는, 인격적인 만남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제자도의 비밀이 아니던가 하고.

할리우드의 어떤 예수보다 덜 신비롭고 덜 아름답고 덜 희고 비교적 덜 젊은(나는 지금 <선 오브 갓>(2014)의 꽃미남 예수를 떠올린다) <부활>의 예수(클리프 커티스)가 이 부드럽고 친근한 만남에 큰 공을 세웠다. 뉴질랜드 마오리족 태생인 그는 남미와 아랍계 인물을 주로 연기해왔다. 

# 기준가격구매제로 시민참여 늘리자

## -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은 20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가장 기대하는 입법 과제 중 하나이다. 국내 주요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들이 참여하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그동안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한국YWCA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입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 독일, FIT로 재생에너지 비중 32.6% 증가

이미 19대 국회에서 김제남 의원은 다른 야당의원들과 함께 2012년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에 한해서 다시 도입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시민단체와 야당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재도입을 요구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 제도가 OECD 최하위인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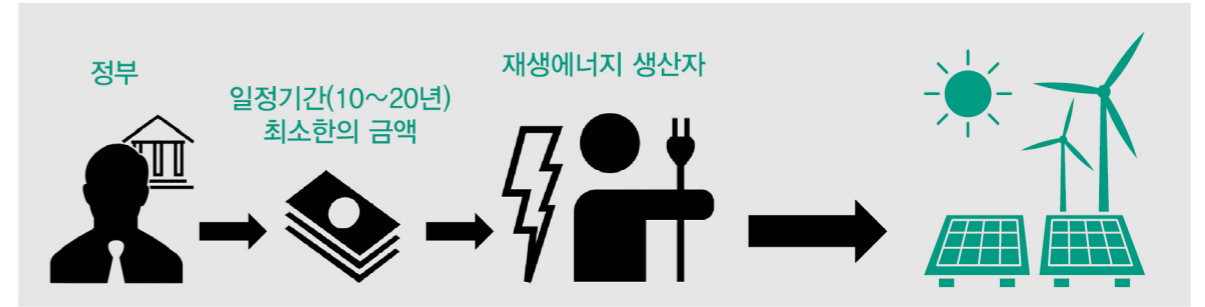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는 기준가격구매제(Feed-In Tariff : FIT)와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 RPS)로 구분된다.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직접 보조나 용자,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같은 직접 개입 방식도 있고 순계량(Net-Metering)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국내에서도 병행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이끌어가는 것은 기준가격구매제(FIT)와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이다.

재생에너지네트워크(REN21)에 따르면 FIT를 시행

했거나 시행 중인 국가와 주는 108개에 달한다. RPS를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국가와 주도 99개에 달한다. 그런데 후자는 미국, 캐나다, 인도에 속한 주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을 제외하면 10여개 국에 불과하다. 한국은 2002년부터 FIT를 시행하였으나 2012년 폐지하고 RPS를 시행 중인 국가로 양쪽에 이름을 올렸다. 정반대로 영국, 일본, 중국 등은 과거에는 RPS를 시행했다가 최근에 FIT로 전환한 후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증했다.

FIT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에너지원별로 표준비용을 반영한 ‘기준가격’으로 구매하는 제도이다. 전력사업자나 공공부문에서 전력망으로 보내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기준가격으로 구매해 주거나 계통한계가격(SMP)<sup>1)</sup>과 기준가격 사이의 차액을 지원한다. 국내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라고 명명되었다. 발전사업자는 15~20년간 생산된 전력을 기준가격에 판매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기준가격은 정부가 정하는데 정부는 기술개발 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

출처 : 환경운동연합

이,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서 기준가격을 계속 낮추어 간다. 기준가격이 높으면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가 급증해 계통연계 문제나 전기요금 인상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기준가격이 낮으면 신규 설비량이 급감하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가격의 설정이 중요하다.

FIT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매우 효과적이다. 독일은 FIT를 통해 전력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00년 6.2%에서 2015년 32.6%로 크게 늘렸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독일은 45GW의 풍력설비와 39.7GW의 태양광 설비를 보유하게 되었다. 중국은 2011년부터 FIT를 시행하면서 수력은 물론 풍력과 태양광 보급량도 세계 1위로 올라섰고 일본도 2011년 후반기부터 유럽의 두 배에 달하는 태양광 기준가격을 적용하면서 태양광 보급량이 급증해 34GW에 이르렀다.

### 한국 RPS 제도의 한계

RPS는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전력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원에서 나오는 전력으로 구성하도록 전력회사에 의무를 할당하는 제도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을 정하고 가격은 발전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통해서 결정된다. 이 제도가 널리 활용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주로 전력판매회사에 이 의무를 할당하고 전력망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연계를 보장하는 방식인데 국내에서는 발전사업자에게 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FIT든 RPS든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데, 바람이 매우 좋은 텍사스는 RPS 의무 이행 원가가 저렴한 풍력으로 채우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처럼 경제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런 여건에선 RPS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

국내에서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발전, 폐기물, 수력, 조력 등 모든 재생에너지원별로 또 설치 유형별로 발전원가를 고려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경쟁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RPS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셈이다. 더군다나 국내에는 신에너지라는 이유로 연료전지나 석탄액화가스화 발전도 RPS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만의 독특한 RPS 제도에 대해 관료와 전문가들은 ‘한국형 FIT’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국내 여건이 RPS에 적합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 소규모 발전사업만이라도 FIT 적용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폐지하고 RPS를 도입한 결과 시행 4년 만에

1) 계통한계가격(SMP)은 거래시간별로 일반 발전기(원자력, 석탄 외의 발전기) 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h)으로 전력생산에 참여한 일반 발전기 중 변동비가 가장 높은 발전기의 변동비로 결정된다.

기존 설비 보급량의 약 6배인 6GW(태양광 2.5GW, 비 태양광 3.5GW)가 보급되었다고 RPS 성과를 홍보한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FIT를 유지했다라면 오히려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 늘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태양광 분야는 정부가 보급량을 정하지 않고 적절한 기준가격만 제시한다면 독일, 일본, 중국이 경험한 것처럼 보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경제적,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정치적 의지를 좌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선호와 지지이다. 즉 시민들의 선호와 지지, 달리 표현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정도에 의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수준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든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수록 발전시설 입지 갈등과 소비자 부담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다.

누군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고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입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흔히 덴마크와 독일을 재생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로 말하는데 그들은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비용을 분담하고 입지 문제를 현명하게 풀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출자하거나 회사나 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시민발전소 등 이익공유 시스템이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참여 확대라는 맥락에서 적어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FIT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 RPS 시장은 전문 발전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조라 평범한 시민들이 지분을 이용하거나 주민들이 공동 부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발전사업에 참여하

기가 쉽지 않다.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100KW 이하)를 위한 별도의 시장이 마련되었지만, 전문적인 사업자로 매달리지 아니면 진입하기가 어렵다. 3KW든 10KW든 지분을 이용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태양광발전을 하여 배전망에 물리면 투자비를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평범한 많은 시민들이 주변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슈머로 참여하고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재생에너지 전환, 정치적 의지가 중요

FIT 도입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설비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시민참여 확대는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 전환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독일 소비자들이 20%에 달하는 전기요금 인상을 받아들이면서 FIT를 지지해 온 배경에는 140만 개가 넘는 태양광 시스템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투자하고 운영에 참여하며 수익을 얻는 수백만의 독일 시민들이 존재한다. 독일 발전설비 용량의 절반가량은 개인이나 시민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노력을 통해 FIT가 도입된다면 과거와 달리 현행 RPS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2%에 못 미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빠른 기간 내에 20%까지 높이려면 12~15% 정도까지 전기요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전기요금이 일본이나 독일의 1/2~1/3 수준임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닐 것이다. FIT의 도입 혹은 병행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 연합회 소식 5월

### 가족과 회원의 달 공동체 예배

YWCA 5월 월례기도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2016년 5월 12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가족과 회원의 달 공동체 예배'로 진행되었다. 마태복음 10장 37절과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으로 가족과 YWCA 공동체를 묵상하고 그 내용을 함께 나누는 예배로 진행됐다. 특히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헌금을 하고, 아픔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를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5쪽에)



### 일본 구마모토 지진 모금과 긴급 구호품 전달

일본 YWCA는 규슈 구마모토현 지진 피해자를 위한 기도와 피해복구 지원 긴급구호 모금을 한국 YWCA에 요청해왔다. 연합회는 회원 YWCA와 함께 4월 18일(월)부터 5월 13일(금)까지 긴급구호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기도로 마음을 모았다. 연합회는 5월 중순 성금을 모아 일본 YWCA에 전달할 예정이며, 일본 구마모토 YWCA가 긴급 요청한 도시락김을 우선 전달했다.

### 체르노빌 참사 30주기 탈핵 '불의 날' 캠페인



연합회는 YWCA 탈핵 불의 날 캠페인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입법 촉구를 위한 서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회원 YWCA 신입 이사과 위원장들이 참석한 4월 26일(화)

106차 캠페인에서는 체르노빌 참사 30주기를 맞아 희생자 추모와 사진전, 4개국어 피켓시위, 전단지 배포 등 시민홍보를 벌였다. 또한 최근 큰 피해를 당한 일본 구마모토 인근 센다이 원전의 가동중단과 주변 원전들의 재가동 시도 중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6월 초까지 진행할 FIT 서명운동은 20대 국회 '1호 입법청원'을 위해 개원 직후 국회로 청원서를 전달하게 된다.

### 제20회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

1996년 제정되어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YWCA가 뽑은 좋은 TV프로그램상' 시상식이 4월 19일(화) 서울 YWCA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 한용길 CBS 사장 등이 축하자로 참석했으며, 올해 20회 수상자들을 비롯해 특별히 YWCA 전국회장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대상은 EBS <다큐프라임>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또 하나의 독립운동' 3부작이 수상했다. (자세한 내용은 18쪽에)

### 2016 YWCA 전국회장단 연수

회원 YWCA 전국회장단 연수가 4월 19일(화)부터 1박 2일 동안 서울 YWCA와 버들캠핑장에서 열렸다. YWCA 정체성과 운동을 배우고, 각 지역 현안에 따라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소통과 교류로 진행됐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인 김은주 연합회 실행위원이 성평등 운동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이천진 목사의 영성훈련과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이 진행하는 워크숍 시간으로 이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22쪽에)

### 제1차 씽크머니 강사 교육



씨티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1차 씽크머니 강사교육이 4월 25일(월) 연합회 강당에서 진행됐다. 2016년 들어 처음 실시된 이번 강사교육에서는 YWCA와 씽크머니, 청소년

에 대한 공감과 이해 등 씨티금융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초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을 수료한 씨티은행 임직원들은 찾아가는 씽크머니 교육 등에서 금융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생명꿈나무돌봄센터 파주 이전, 논산 개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연합회가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생명꿈나무돌봄센터의 논산센터가 4월 28일(목)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논산 광석면에 민간 지원의 아동돌봄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파주센터는 4월 25일(월)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 생명꿈나무돌봄센터는 보육사각지대인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가구 10세 미만아동들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됐다. 이번에 개소하는 논산센터를 포함해 제천, 파주, 하남 지역에 모두 5개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8쪽에)

**제2차 1단계 실무자교육**

지난 3월에 이어 제2차 1단계 실무자교육이 4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YWCA 버들캠프장에서 열렸다. 회원YWCA와 연합회 실무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기동 연합회 실행위원, 이천진 목사(한양대학교 교목),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 구정혜·명진숙·박은실 연합회 국장, 정은영 대구Y 국장, 김태순 청주Y 서부사회복지관장, 김미현 서울Y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간사, 원은숙 군산직할지부 사무국장, 임주현 안산Y 사무총장 등이 강사로 참석해 YWCA 활동가로서 정체성과 YWCA 운동을 배우고 나눴다.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 처벌추진과 불매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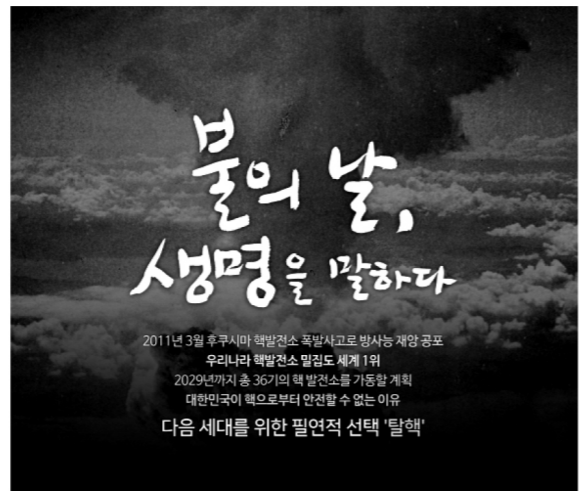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제조기업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4월 25일(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연합회는 연대할

동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비자들이 관련 제품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으며, 전국 회원YWCA와 함께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YWCA 세 번째 영화 '불의 날, 생명을 말하다' 시사회**

연합회는 4월 28일(목)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씨네큐브에서 '불의 날, 생명을 말하다' 시사회를 열었다. 연합회 후원회 이사인 전화성 영화감독(씨엔티테크 대표)이 재능기부로 연출한 이번 영화는 김수로 청년초록네트워크 대표, 김영자 경남밀양상동면순전탑반대대책위원회 총무, 김해창 경성대 교수,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차경애 연합회 직전 회장, 최경숙 차일드세이프 대표 등 탈핵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여성들이 전면에 나선 탈핵운동의 길을 조명하는 대담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 연합회는 정의, 평화, 생명운동으로 전개하는 탈핵운동의 의미를 다음 세대에 공유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YWCA 회원을 비롯한 시민들의 탈핵 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식품안전의날 맞아 서울시내 동시다발 캠페인 진행**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 단체는 5월 18일(수) '소비자와 함께하는 2016년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서울시내 10곳에서 동시다발 캠페인을 벌였다. HACCP표시 확인, 식품표시 확인으로 식품안전 확보하기 등 다양한 주제로 남대문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진행됐다. 연합회는 'GMO 표시 바로알기'를 주제로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명동을 지나는 시민들과 만났다.

**이명혜 회장, 이명헤리더십기금 쾌척**

이명혜 연합회 회장은 한국YWCA 실무 활동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1억 원을 쾌척했다. 이에 연합회 장학위원회는 이명헤리더십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명혜 회장은 "자원활동가들을 위한 이행자리더십기금이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에 실무활동가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게 됐다.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YWCA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이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동정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영희 연합회 부회장(세계YWCA 공천위원) 세계YWCA 공천위원회 참석 : 4월 24일~28일, 스위스 제네바</li> <li>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연합회 전문직 실행위원 위촉(2016. 4.~2018. 3.) 유권자의 날 국민포장 수상(2016.5.10)</li> <li>신임 사무총장 강주영 (안동YWCA) 2016. 5. 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수현 간사(탈핵생명위원회) 2016. 4. 11.</li> <li>이기원 간사(총무팀) 2016. 4. 11.</li> <li>심선미 간사(복지사업단) 2016. 5. 1.</li> <li>백보람 간사(회원Y협력지원위원회) 2016. 5. 10.</li> </ul>
<p><b>부고</b></p> <p>2006년부터 지난 10년간 연합회 실무활동가로 활동해온 최지혜 팀장(39세)이 2016년 5월 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최지혜 팀장의 YWCA 사랑과 노고를 기억하며, 영면을 기원합니다. 유가족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p>	<p><b>바로잡습니다.</b></p> <p>· 월간(한국YWCA) 4월호 이달의 현장② 중 연변 민들레문화 교류협회 창립 12주년을 '13주년'으로 바로잡습니다.</p> <p>또한 홍인욱 위원, 서희정 위원을 각각 홍인숙 위원, 서희전 위원으로 바로잡습니다.</p>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6.03.01~04.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CMS기부 (2016.3.1 ~4.30)	강승아, 고세영(청주Y), 고예린, 고은희, 곽지영, 구정혜, 국승훈, 권순복, 권인택, 권진, 김가현, 김건세, 김경숙,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병희, 김미애, 김병호, 김복례, 김사라, 김상은, 김수연, 김영자, 김은경, 김일곤, 김재연,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진용, 나윤지,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인수, 민선영, 박보람, 박영수,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임희, 박진화, 박효정, 배정미, 백정미, 백혜진, 서명희, 성동숙, 송록희, 신인숙, 심명자, 심은옥, 안은정, 안정희, 안혜진, 양종원, 엄효정, 오소영, 오시창, 오영란, 오현숙,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유명선, 유수정, 유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은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주영, 이지은, 이지은, 이천진, 이향재, 이행자, 이혜련, 이혜진, 임강숙, 임국이, 임진영, 임향옥, 장경자, 장미란, 장선희, 장윤우, 전배자, 전정미, 전하예, 전현주, 정경란, 정동신, 정순,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조은희, 진인식, 채정희, 최수산나, 최지혜,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함희경, 홍기자, 홍선식, 홍현정, 홍현화, 황홍백 (총123명)	3,514,000
개인 기부	김미, 박복례, 박영순, 이진용, 전인선, 최영자, 최혜실, YWBS 아나운서, 무명	1,834,180
협력 교회	기쁜소식교회, 성광교회, 약전평강교회, 열린문교회, 한양대학교교회여성교회	1,451,000
기관 및 단체	마포구청 선교 신우회, 외환은행 명동지점(저금통)	203,110
교육 및 모금	1차 1단계 실무자교육 모금	13,000
회원YWCA	서울YWCA	227,300
<b>합 계</b>		<b>7,242,590</b>

## 북부

### 강릉YWCA 이신애 부장

#### 회원운동 발대식



4월 28일(목) 오후 2시 회원운동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강교자 한국YWCA연합회 증경회장을 강사로 초청해 회원운동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에 YWCA회원이라면 꼭 해야 하는 일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교육 후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위원회별로 발표하여 많은 웃음을 나누었다.

### 동해YWCA 안지원 팀장

#### 2016년 회원증모 발대식



동해YWCA는 4월 8일(금) 본관 대강당에서 2016년 회원증모 발대식을 열었다. 조를 나누어 조별로 신나는 포스터 만들기 작업 등을 진행하고, 회원들의 발표를 통해 증모운동의 필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즐겁고 화기애애한 발대식이였다. 신규 회원과 재가입 회원을 관리하고 회원운동이 확산되도록 결의하고, 지도자의 역할과 필요성을 인식했다.

### 서울YWCA 성지희 간사

#### 극동방송과 상호교류협력 협정

서울YWCA는 4월 21일(목) (재)극동방송과 업무협약을 맺고 각 기관의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홍보는 물론 기독교여성단체로서 서울 YWCA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폭넓고 활발해지리라 기대한다.



### 속초YWCA 정인숙 간사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단합대회



속초YWCA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4월 23일(토) 강릉 솔향수목원으로 단합대회를 다녀왔다. 건강관리사들은 숲길을 따라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을 만끽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도 나눴다.

### 원주YWCA 김은섭 팀장

#### EM으로 살리는 청정강원 환경캠페인



4월 12일(화) 원주 자유시장에서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미생물 EM발효액을 무료 배포하고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주YWCA가 선정되었다. 원주 YWCA는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인천YWCA 황진아 간사

####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 개장



'2016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 개장식이 4월 23일(토) 오후 1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열렸다. 풍물패와 필리핀 전통 축하공연에 이어 기념행사, 친환경가래떡 커팅, 장터 운영 등으로 진행하였으며, 35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해 개장식 관람과 물품 판매, 구매활동,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이번 장터는 10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에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교환할 수 있다. 나눔마당, 살림마당, 재활용마당, 체험마당, 나눔카페마당, 기부마당 등 다채로운 주제로 운영된다.

### 춘천YWCA 옥여진 간사

#### 창립50주년 기념예배와 출판기념회

춘천YWCA는 창립50주년 기념예배와 출판기념회를 4월 26일(화) 춘천YWCA 대강당에서 열고, '평화·평등·미래·소통'을 위한 비전 선언문을 선포했다. 표석영 춘천YWCA 회장은 "지난 50년간 시대의 아픔과 불의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 헌신의 발자취를 걸어왔다"며 "깊은 역사와 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며 생명과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명혜 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전국 YWCA회장단,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다.

## 경기

###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성 인지 교육



고양YWCA는 4월 19일(화)부터 매주 화, 목요일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성 인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성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성의 위치와 삶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가는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시작으로 역사 속에서 잊혀진 여성들을 발굴해 소개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도시공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시민 의견을 시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남양주YWCA 이정은 간사

#### 탈핵과 에너지전환 홍보, 가슴기 살균제 불매운동



남양주YWCA는 4월 29일(금) 남양주 송라초등학교에서 열린 마을운동회에 회장, 실무자, 봉사자가 참석해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홍보하고 서명운동을 펼쳤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탈핵의 중요성을 알리고 핵발전소의 심각성을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옥시레킷 벤키저사 가슴기 살균제 관련 상품불매 운동도 함께 진행했다.

## 부천YWCA 이지원 간사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부천YWCA에서는 매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벌이고 있다. 4월에는 특별히 부천YWCA 사무실이 위치한 상3동 주위를 돌며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감시단원들이 가게 등을 돌면서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 스티커와 '청소년 술 · 담배 판매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 수원YWCA 정지영 간사

### 제2회 수원팔색길 종주대회



수원YWCA는 5월 7일(토) 시민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수원팔색길 종주대회'를 광교공원에서 열었다. 이번 대회는 지계길과 모수길 일부를 연결한 5.5km 구간을 종주하는 코스로 마련됐다. 경기대 응원동아리와 벨리댄스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흥승화 수원YWCA 회장 인사말, 축사, 준비운동 등으로 진행했다. 탈핵을 위한 생활 속 에너지절약 체험, 팔색길 뺨지 만들기, 일 · 가정 양립 캠페인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 성남YWCA 전아영 간사

### 회원 마련을 위한 일일카페

성남YWCA는 회원마련을 위해 일일카페를 4월 28일(목)에

열었다. 성남YWCA 회원마련에 많은 관심을 보내준 성남 시민들과 지역 내 여러 기관에서 참석해 식사와 교제를 나누었고, 일일카페를 마무리하였다.



## 안산YWCA 문성은 간사

### 다문화 체험 월드페스티벌과 나눔장터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4월 30일(토) 베트남, 일본, 몽골, 한국의 날을 주제로 국가별 음식판매, 전통놀이, 문화체험, 전통춤 공연 등 월드페스티벌과 키다리마켓 나눔장터를 센터에서 개최하였다. 10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다문화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 안양YWCA 김순태 간사

### 회원증모발대식



4월 14일(목) 안양YWCA 강당에서 이사, 위원, 실무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증모 발대식이 열렸다. 조별 워크숍

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단합과 회원증모의 의지를 다졌다. 이번 회원증모운동은 '생명 세상! 당신의 참여로!'라는 주제로 80일간 집중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 의정부YWCA 이미진 간사

### 결혼이주여성 역량강화 프로젝트

의정부YWCA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5월 2일(월)부터 6월 1일(수)까지 '다문화 특(talk)톡(talk)교실'을 운영한다. 결혼이주여성 역량강화 프로젝트로서 이주여성들이 인권교육과 차별예방교육, 멘토링을 통해 스스로 다문화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놀이와 체험 등을 교육하는 인권강사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다. 결혼이주여성이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임파워링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인으로 성장하고 다문화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 파주YWCA 서동희 간사

### '찾아가고 싶은 적성꽃마을' 조성사업



4월 8일(금) '찾아가고 싶은 적성꽃마을' 조성사업을 파주YWCA 주관으로 진행했다.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된 파주YWCA 농촌살리기운동으로 4년 동안 간파천 주변에 이팝나무를 심었고, 올해는 어유지1리와 어유지2리, 적암리에 나무를 심었다. 내년에는 장현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 주민들이 농촌발전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를 살리고, 농촌발전이 시민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

## 중부

## 논산YWCA 권연정 간사

### 청소년 동아리 인준식



논산YWCA 청소년위원회에서는 4월 30일(토) 오전 9시 30분 논산YWCA 2층 강당에서 논산제일감리교회 박진성 교육 목사 설교를 시작으로 청소년과 청소년위원회 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동아리 인준식을 진행하였다. 인준식을 통해 앞으로 진행할 Y-틴 주제인 '일본군 위안부'와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논산 생명꿈나무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동아리 '페스타로치'가 지역사회봉사활동과 환경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 대전YWCA 김지찬 팀장

### 지역안전 프로그램 호루라기지킴이 발대식



대전YWCA는 4월 29일(금) 오후 2시 2016년 지역안전프로그램 호루라기지킴이 발대식을 진행했다.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과 호루라기지킴이 활동가 등 40여 명이 참여하여 위촉장을 수여받고, 활동가로서 안전교육을 받았다. 호루라기지킴이들은 5월부터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야간 아동 귀가지원도우미로 활동한다. 또한 대전지방경찰청(관내 6개 경찰서)과 지역아동연대 소속 상담소와 연계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 제천YWCA 김미경 간사

### 지구별도서관 문화교실 개강



제천YWCA 지구별도서관에서는 4월 6일(수)부터 유아 15명을 대상으로 주 1회 문화교실(오감발달 책놀이)을 진행한다. 책읽어주기 후 다양한 활동으로 유아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책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온 몸으로 느끼게 하는 교육이다. 지구별 도서관 문화교실은 연 4회 유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천안YWCA 정상란 간사

### 사랑 나눔 바자회



4월 22일(금)부터 23일(토)까지 이틀간 천안YWCA 본관에서 지역사회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주)가구대통령의 후원을 받아 '가위바위보 1000원의 행복'의 경매 행사를 진행했다. 회원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 호흡하는 만남의 장 행사로 진행됐다.

## 청주YWCA 최지경 간사

### 2기 길·꿈·기회찾기 프로젝트

4월 9일(토) 청주YWCA 소망실에서 2기 길·꿈·기회찾기 프로젝트 최종선발을 했다. 길·꿈·기회찾기 프로젝트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

종 심사를 통해 각 청년 지원자들의 꿈과 비전을 듣고 1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각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청주YWCA는 청년들과 함께 청년운동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 서부

## 광주YWCA 손유영 부장

### 2016년도 제1차 이사·위원 연수회



2016년 광주YWCA 제1차 이사·위원 연수회가 4월 15일(금)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례 지리산KT수련관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예배에 이어 정운순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번 연수는 임철 목사(성서유니온선교회)의 '신앙과 묵상 그리고 영성'이라는 주제로 영성훈련을 하였다. 오미란 전문위원(지역고용정책연구원)의 '성평등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 강연을 통해 성 평등의 필요성과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Y 지도자로서 역할을 강화했다.

## 남원YWCA 김미정 간사

###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라데이' 캠페인

남원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5월 14일(토) 남원 사랑의 광장에서 보라데이(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보라데이는 '보라(LOOK)'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주변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함께 보자'는 의미이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TV에서만 접하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행동해야 한다는 공감을 키우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목포YWCA 광수현 부장

### 탈핵과 에너지절약 실천 캠페인



목포YWCA는 4월 23일(토) 평화광장일대에서 지구의 날을 맞아 목포시민 대상으로 탈핵과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지구를 살리기 일환으로 참여자들과 함께 평화광장 일대를 행진하면서 목포시민들에게 햇빛과 바람으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와 탈핵 탈원전 사회를 이루도록 하는 바람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목포YWCA는 목포시민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 행복드림 아카데미 인생 2막 설계과정 운영



4월 30일(토) 서귀포YWCA회관에서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개강식과 제1강좌를 진행하였다. 서귀포시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36명의 퇴직자와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퇴직(예정)자들이 노후를 대비하고 퇴직 후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2의 인생설계과정과 부동산 재테크, 법률, 세무 등 전문역량과정으로 총 25주 100시간동안 강의와 현장체험으로 진행된다. 수강생들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제2의 인

생계획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순천YWCA 오은혜 간사

### 4개 Y-틴 동아리 인준과 신입생 환영회



순천YWCA에는 4월 16일(토) 해피락(주) 해피홀에서 Y-틴 회원, 오라포레야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Y-틴 인준식과 신입생환영회를 진행하였다. 강선임 회장과 신성의 사무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인준식에서는 순천지역 4개 Y-틴 동아리 인준과 Y-틴 배지 전달을 했다. 이날 참여한 회원들은 Y-틴으로 할 수 있는 역할과 YWCA 목적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활동을 다짐하였다.

## 여수YWCA 박선주 간사

### 회원증모발대식



여수YWCA는 4월 26일(화) 회관 강당에서 회원증모발대식을 진행하였다. 최양남 광주YWCA 직전회장의 '열정 앞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회원증모 조직구성과 세부계획을 세웠다. 이사, 위원,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하는 특별히 회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조별 워크숍을 진행하여 여수YWCA 회원증모 운동의 목적, 목표를 되짚으며 회원증모에 대한 의지를 높였다.

## 전주YWCA 김은진 국장

### 북한이탈주민 사업기금 마련을 위한 '나눔이 있는 봄 장날'

전주YWCA에서는 4월 21일(목)부터 22일(금)까지 전주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 '나눔이 있는 봄 장날'을 성황리에 펼쳤다. 북한이탈주민 사업기금 마련을 위해 기획된 봄 장날에는 좋은 일에 힘을 모으겠다며 무료로 물품을 협찬한 업체들이 있어 더 의미 있고 풍성한 봄 장날이 되었다. 또한 봄 장날을 통해 시민들에게 YWCA를 알리고 YWCA 운동에 참여하도록 도왔다.



## 제주YWCA 이유리 간사

### 2016년 평화아카데미 개강식



4월 27일(수) 오후 3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1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2016 평화아카데미 '제주평화의 섬 지정 11주년, 나는 평화한가?'를 개강했다. 첫 강좌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남북군사회담 대표로서 경험담 소개와 북한 감정은 정권의 특성과 대남전략, 통일에 이르는 경로, 가장 바람직한 평화통일 국가전략, 향후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동부

## 거제YWCA 박숙혜 간사

### 결혼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4월 28일(목) 결혼이민자를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하였다.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 나라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 제도,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이다. 5개국(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결혼이민자와 가족들이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하였고 만족도도 높았다.

## 대구YWCA 배민희 간사

### 93주년 창립예배와 홈커밍데이



4월 21일(목) 대구YWCA는 93주년 창립기념예배와 홈커밍데이를 열었다. 대구YWCA 100주년을 향해 7년이 남은 93주년을 기념하며 대구YWCA를 지켜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진행했다. 곳은 날씨 속에서도 자리를 빛내준 회원들과 YWCA에서 활동했던 전(前) 이사 및 위원, 실무자들이 Y에서 함께 지냈던 옛 추억을 나눴다.

## 마산YWCA 이애라 부장

### 씽크머니 협력학교 진행



2016년 씽크머니 협력학교(6차시)를 창원월성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진행하고 있다. 4월 7일(목) 1차를 시작으로 5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씽크머니 강사 6명이 매주 강사연구모임을 통해 강의평가와 다음차수업내용을 협의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고 있다.

## 양산YWCA 박경하 간사

### 단체급식전문조리사 교육과정 개강

양산YWCA는 4월 11일(월)부터 6월 22일(수)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단체급식전문조리사 교육을 진행한다.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역량을 강화하여 맛, 영양, 위생을 책임지는 당당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이 노동시장 다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음식, 외식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전문성과 차별성을 둔 준비된 전문인 배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울산YWCA 김다혜 간사

### Y-틴 대학Y 인준과 발대식



4월 9일(토) 울산YWCA 2층 강당에서 Y-틴 암니옴니, 대학Y 애솔의 동아리 인준식과 발대식이 열렸다. 울산YWCA 문상순 회장과 정은경 사무총장이 자리를 빛냈고, 3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교제와 나눔, 친목시간을 가졌다.

## 진주YWCA 고명정 팀장

### 다문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키다리FC 창단

다양한 이주배경을 갖고 있는 지역내 청소년들이 축구(풋살)를 통해 어울리고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진주YWCA 키다리FC를 창단했다. 키다리FC는 '키우자 다문화시대 청소년리더'의 준말로 베트남, 중국, 태국, 남아공, 인도에서 이주해온 이주여성 가정 또는 중도입국청소년 9명과 지역청소년 7명이 창단 멤버로 함께 한다. 4월 23일(토) 오후 4시 탐스포츠아카데미 풋살장에서 창단식을 하고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에 정기적인

훈련과 활동을 진행한다. 진주Y 키다리FC는 갤러리아진주백화점과 진주시풋살협회가 후원하고 탐스포츠아카데미가 훈련지도를 맡는다.



## 창원YWCA 김재희 부장

### 우리 동네에서 시작하는 여성인권 이야기

창원YWCA는 4월 19일(화) 지역민을 대상으로 '위안부 역사를 통해 본 한국여성인권운동'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5월 10일(화) 대구희움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방문하였다. 한국여성들의 인권이 바로 세워지고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YWCA 성평등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 포항YWCA 황인주 부장

### 이사·위원·강사 연수와 회원증모발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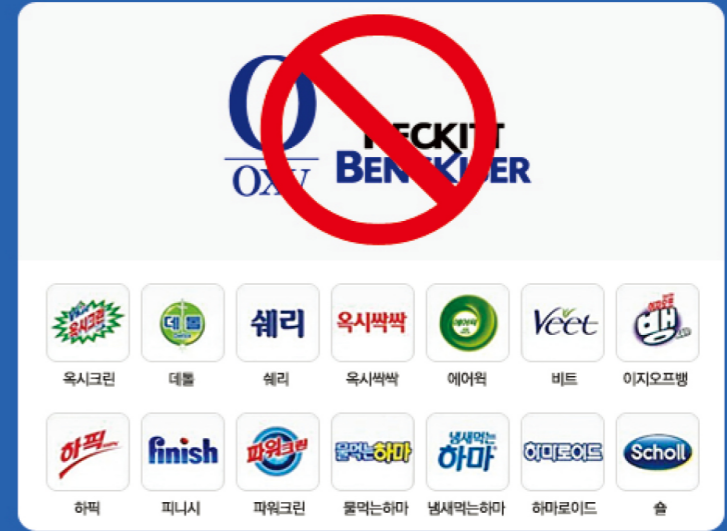


포항YWCA는 4월 20일(수) 사랑의농장에서 강교자 한국YWCA복지사업단 이사장을 강사로 초청해 이사·위원·강사 연수를 진행했다. 40여 명이 참석한 회원증모 발대식을 통해 YWCA 운동의 가치와 회원 증모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지역사회 속에서 YWCA 정체성을 확립했다.

5월 · May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2 의정부Y 다문화 톡(talk) 톡(talk) 교실 (~6월 1일)	3 광명Y 성폭력전문 상담원 양성교육 (~6월 30일) 마산Y 창립 50주년 출판·편집위원회 포항Y 2016년 상반기 취업박람회	4 안산Y 증경이사모임	5 제천Y 아이러브 페스티벌	6 원주Y 창립기념일 (1967.5.6.)	7 남원Y 청소년어울림마당
8	9 목포Y 2016년 회원 증모 운동 발대식 속초Y 장애인 활동 보조인 양성교육 순천Y 인건바자회 (~7월 31일) 춘천Y 회원증모 발대식	10 강릉Y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제 교육 (~13일) 마산Y 회원증모 발대식 속초Y 회원증모 발대식	11 대구Y 여전도회 초청 오찬회 서귀포Y 평화아카데미 귀향 14년의 평화이야기 파주Y 회원증모 발대식	12 대전Y 애들아 아침밥 먹자 창원Y 청소년박람회 (~14일) 춘천Y 돌봄회원 단합대회 파주Y '찾아가는 썬크 머니' 기업가 체험 실시	13	14 남원Y 보라데이 캠페인
15	16 고양Y 고양평화포럼 의정부Y 아이돌보미 2차 보수교육 (~5월 20일)	17 남양주Y 단체급식 조리원 양성교육 (~6월 8일) 수원Y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센터 나들이 제천Y 요양보호사 구인, 구직 만남의날	18 인천Y 몽골사막화 방지식림 활동 (~22일) 창원Y 탈핵캠페인 및 FIT 제도 도입 서명운동	19 순천Y 창립70주년 기념 여성영화제 (~20일) 포항Y 아카데미 동부지역센터 회원Y 신임이사 교육 및 상임위원장 연수	20 양산Y 지역민과 결 혼이주 여성이 함께 하는 멘토멘터 교육 전주Y 이사 문화연수 창원Y 대학Y 인준식	21 거제Y 셋바람프리마켓 고양Y 아동비전서비스 '꿈찾기 비전스쿨' (21일, 28일) 목포Y 여성단체연계 농특산물 판매 장터 서울Y 청소년팀 인준식 양산Y 세대공감 톡(talk) &통(通) 프로그램 여수Y 재외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한마당행사 인천Y Y-틴, 대학청년Y 인준식 창원Y Y-틴 인준식
22 수원Y 다문화한가족 축제 부스 운영	23 동일임금의 날 정책 토론회와 거리 캠페인 강릉Y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교육 (~6월 1일) 광명Y 회원증모발대식	24 여성평화 심포지엄	25 여수Y 창립기념예배 및 여성영화 상영 제천Y 회원증모 중간보고회	26 수원Y 성인지교육 여수Y 창립기념일 (1982.5.26)	27 김해Y 창립기념일 (1991.5.27)	28 2016 여성평화경기 거제Y 청소년오케스트라 청소년축제공연 대구Y 비.행.기 베품시장 서울Y 걷기축제 제주Y 회원열린강좌 '어버이날 맞이 봉투 만들기'
29 제주Y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발대식	30 제66차 유엔 NGO 컨퍼런스(~6월 1일) 남양주Y 정리수납과 살림 돌보미 양성교육 (~6월 3일)					

# 옥시, 팔지도 사지도 말자!



## 책임회피·늦장대응, 정부는 가슴기살균제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자혜)는 가슴기살균제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정부가 관련 있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누구도 추가적인 피해상황에 대한 파악이나 피해보상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어 가슴기살균제 피해의 안전 지침과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탄하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6년 4월4일까지 집계된 가슴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가 1,528건에 이르고 총 사망자 239명, 2015년 2월부터 2016년 4월 19일까지 제조사 처벌과 피해대책을 요구한 1인시위 횡수가 381건에 이르는 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조사 및 대책조치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가슴기살균제가 사망원인이라는 역학 조사 결과만을 내놓았을 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회의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확실히 가려 인명 피해를 유발한 가슴기 제조업체의 진실을 낱알이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바 유해한 제품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못하도록 철저한 검증과정을 마련할 것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더 이상 피해자들의 고통이 외면받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 회원단체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